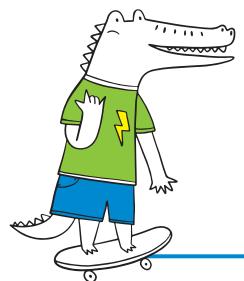


중학 개념있는  
국어문법 문제편



정답과 해설

## I

## 음운

개념01  
[음운 체계]

## 모음 체계

본문 11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1 01 (1) × (2) ○ (3) ○ (4) ○ 02 (1) 단 (2) 단 (3) 이중 (4) 이중  
 01-1 03 (1) 높은 (2) 중간인 (3) 낮은 04 (1) 기개 (2) 공사 (3) 어종 (4) 우리  
 01-2 05 (1) ㅐ, ㅔ, ㅚ, ㅟ, ㅣ (2) ㅏ, ㅓ, ㅗ, ㅜ, ㅡ 06 (1) 생일 (2) 동물, 타조 (3) 가재, 거위  
 01-3 07 (1) 평순 (2) 평순 (3) 원순 (4) 원순 (5) 평순 (6) 평순 (7) 원순 (8) 원순 08 외국, 고귀, 운동

본문 12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⑥ 06 ④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⑤ 12 ①

01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며 소리가 나는 것은 이중 모음이다.

02 단모음에는 ‘ㅏ, ㅓ, ㅗ, ㅜ, ㅡ, ㅣ’가 있다.

03 ‘원숭이’는 단모음 ‘ㅜ, ㅣ’와 이중 모음 ‘ㅟ’가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외기려기’는 단모음 ‘ㅚ, ㅣ, ㅓ’만 사용되었다.  
 ③ ‘예의’는 이중 모음 ‘ㅕ, ㅛ’만 사용되었다.  
 ④ ‘여유’는 이중 모음 ‘ㅕ, ㅠ’만 사용되었다.  
 ⑤ ‘민중’은 단모음 ‘ㅣ, ㅓ’만 사용되었다.

04 고모음에는 ‘ㅜ, ㅟ, ㅡ, ㅣ’가 있고, 중모음에는 ‘ㅓ, ㅕ, ㅗ, ㅚ’가 있다. ‘공기’에서 ‘ㅗ’는 중모음이며, ‘ㅣ’는 고모음이다.

## 오답 풀이

- ① ‘음식’은 고모음과 고모음이 사용되었다.  
 ② ‘가게’는 저모음과 중모음이 사용되었다.  
 ③ ‘마을’은 저모음과 고모음이 사용되었다.  
 ⑤ ‘안정’은 저모음과 중모음이 사용되었다.

05 ‘ㅏ, ㅓ’는 저모음이다.

06 단모음을 ‘ㅐ, ㅔ, ㅚ, ㅟ, ㅣ’와 ‘ㅏ, ㅓ, ㅗ, ㅜ, ㅡ’로 구분한 것은 혀의 최고점 위치(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07 ④ ‘괴물’의 ‘ㅚ’는 전설 모음이며, ‘ㅜ’는 후설 모음이다. 즉 ⑤에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바뀐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악수’의 ‘ㅏ, ㅓ’는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② ‘위기’의 ‘ㅟ, ㅣ’는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③ ‘괴물’의 ‘ㅚ’는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⑤ ‘괴물’은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사용되었으므로, 전설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위기’와 달리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08 원순 모음에는 ‘ㅗ, ㅓ, ㅜ, ㅟ’가 있으므로, 원순 모음만 사용된 단어는 ‘공주’이다.

09 ④는 평순 모음(ㅓ, ㅣ)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⑥는 원순 모음(ㅜ)과 평순 모음(ㅣ)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것은 ④가 아니라 ⑥이다.

10 ‘고기’에서 ‘ㅗ’는 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하고, ‘ㅣ’는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기’에 사용된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1 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이고, 평순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ㅐ’이다.

12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것은 ‘ㅣ, ㅡ’이다. ‘치즈’의 ‘ㅣ’와 ‘ㅡ’는 모두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므로, <보기>를 만족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나라’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사용되었다.  
 ③ ‘강물’의 ‘강’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물’은 원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 사용되었다.  
 ④ ‘악어’의 ‘악’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어’는 평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 사용되었다.  
 ⑤ ‘우산’의 ‘우’는 원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이, ‘산’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 사용되었다.

## 개념02 [음운 체계]

### 자음 체계

본문 15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2 01 (1) × (2) ○ (3) ○ (4) ×  
02-1 02 (1) Ⓣ (2) ⓘ (3) ⓘ (4) ⓘ (5) ⓘ 03 (1) 바다  
(2) 효자 (3) 감기 (4) 하늘  
02-2 04 (1) ⓘ (2) ⓘ (3) ⓘ (4) ⓘ (5) ⓘ 05 (1) 파찰  
음, 비음, 파열음 (2) 비음, 마찰음, 유음 (3) 파열  
음, 유음, 비음 (4) 파찰음, 비음, 마찰음 (5) 파찰  
음, 비음, 파열음  
02-3 06 (1) ㄱ, ㄷ, ㅂ, ㅅ, ㅈ (2) ㅋ, ㅌ, ㅍ, ㅊ (3) ㄱ,  
ㄷ, ㅂ, ㅅ, ㅈ

본문 16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8 ⑤ 09 ② 10 ③ 11 ③

01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성대의 진동 여부를 고려하여 나눈 것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이다.

02 <보기>에 제시된 자음들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03 윗잇몸과 혀끝 사이에서 나는 잇몸소리에는 ‘ㄷ, ㅌ, ㅂ, ㅅ, ㅈ’이 있다.

04 목청 사이에서 나는 목청소리는 ‘ㅎ’이고, 여린입천장과 혀 뒤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ㆁ, ㅇ’이다. 따라서 <보기>를 만족시키는 자음이 포함된 단어는 ‘학교’이다.

##### 오답 풀이

- ① ‘모자’의 자음 ‘ㅁ’은 입술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② ‘사자’의 자음 ‘ㅅ’은 잇몸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③ ‘아버지’의 자음 ‘ㅂ’은 입술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⑤ ‘방학’의 자음 ‘ㅂ’은 입술소리, ‘ㅎ’은 목청소리에 해당한다.

헷갈려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의 다른 이름

|         |      |
|---------|------|
| 입술소리    | 양순음  |
| 잇몸소리    | 치조음  |
| 센입천장소리  | 경구개음 |
| 여린입천장소리 | 연구개음 |
| 목청소리    | 후음   |

05 파열음에는 ‘ㄱ, ㄲ, ㅋ, ㄷ, ㄸ, ㅂ, ㅃ, ㅍ’이 있다.

06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ㄴ, ㅁ, ㅇ’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모양’이다.

##### 오답 풀이

- ① ‘마늘’에 사용된 자음 ‘ㅁ’과 ‘ㄴ’은 비음, ‘ㄹ’은 유음이다.  
③ ‘놀이’에 사용된 자음 ‘ㄴ’은 비음, ‘ㄹ’은 유음이다.  
④ ‘양반’에 사용된 자음 ‘ㅇ’과 ‘ㄴ’은 비음, ‘ㅂ’은 파열음이다.  
⑤ ‘감귤’에 사용된 자음 ‘ㄱ’은 파열음, ‘ㅁ’은 비음, ‘ㄹ’은 유음이다.

07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비음에는 ‘ㄴ, ㅁ, ㅇ’이 있다. 그런데 ⓘ ‘이리’에서의 ‘이’는 자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모음 단독으로 쓰인 것으로, ‘ㅇ’은 비음이 아니다. 또한 ⓘ ‘리’의 ‘ㄹ’은 유음이다.

08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짹을 이루는 자음은 ‘ㅂ–ㅃ–ㅍ’, ‘ㄷ–ㄸ–ㅌ’, ‘ㄱ–ㄲ–ㅋ’, ‘ㅈ–ㅉ–ㅊ’뿐이며, 따라서 모든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9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에 해당하고, 거센소리를 내는 자음은 ‘ㅌ’이다.

10 혓바닥이 센입천장에 닿아서 소리 나는 자음 중 된소리는 ‘ㅋ’이다.

11 잇몸소리이면서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 개념01 ~ 02 [음운 체계]

본문 18쪽

#### 3 단계

#### 실력 완성하기

-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1) 코끼리,  
산토끼 (2) 다람쥐, 산토끼 (3) 참새 07 ⑤ 08 ④

#### 01 음운의 이해

ㄱ.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과 모음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ㄷ. ‘병아리’는 ‘ㅂ, ㅇ, ㄹ’의 3개의 자음과 ‘ㅋ, ㅌ, ㅊ’의 3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병아리’에서 ‘아’의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자음으로 보지 않는다.

ㄹ.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ㅁ.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의 하나로, 의미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ㄴ. 국어의 자음은 총 19개로, 음질의 초성과 종성에 사용되며, 모음 없이는 혼자서 쓸 수 없다.

#### 헷갈려요!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예) 말[馬]과 말[言], 밤[夜]과 밤[栗]

### 02 단모음 체계표의 이해

'냇물'에 쓰인 모음 'ㅡ'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지만, '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냇물'을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이동한다.

#### 오답 풀이

- ① '강산'에 쓰인 모음 'ㅏ'는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 모음이다.
- ② '위치'에 쓰인 모음 '귀'와 'ㅣ'는 혀의 높낮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으로, 혀의 높낮이에 변화가 없다.
- ④ '소망'에 쓰인 모음 'ㅗ'는 중모음이며 'ㅏ'는 저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높았다가 낮아진다.
- ⑤ '외가'에 쓰인 모음 'ㅚ'는 원순 모음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을 둥글게 오므렸다가 평평하게 해야 한다.

### 03 자음 체계표의 이해

'ㅁ, ㄴ, ㅇ'은 모두 비음으로 공기가 입과 코로 동시에 지나가며 내는 소리이다. 하지만 'ㅁ'은 입술소리, 'ㄴ'은 잇몸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로 소리 내는 위치는 서로 다르다.

#### 오답 풀이

- 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고 나오는 안울림소리이다.
- ② 'ㅅ'과 'ㄹ'은 잇몸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ㅅ'은 마찰음, 'ㄹ'은 비음이므로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다.
- ③ 파열음, 파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대립이 있는 마찰음과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있다.
- ⑤ 'ㅎ'은 목청소리이면서 마찰음에 해당하므로, 목청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이다.

### 04 자음과 모음의 이해

- ⓐ에는 마찰음인 'ㅅ'과 유음인 'ㄹ'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에는 유음인 'ㄹ'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에 사용된 단모음은 'ㅣ, ㅏ'로 모두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 ③ ⓘ에는 이중 모음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에는 이중 모음 'ㅑ, ㅓ'가 사용되고 있다.

### 05 자음과 모음의 이해

'곰', '감', '꼴'의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솜'의 'ㅅ'은 잇몸 소리이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들에 사용된 음운의 개수는 각각 3개로, 모두 같다.
- ② 단어들의 받침인 'ㅁ, ㄹ'은 각각 비음과 유음으로 모두 올림소리이다.
- ③ 단어들에 쓰인 모음은 'ㅗ'와 'ㅏ'로, 'ㅗ'는 원순 모음, 'ㅏ'는 평순 모음이다.
- ④ '곰'에서 '솜'으로의 변화에는 초성 하나(ㄱ → ㅅ)만 바뀌었다.

### 06 자음의 종류 이해

- (1) 파열음이면서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ㅌ'이므로 '코끼리, 산토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로, 'ㄷ, ㄸ, ㅌ, ㅅ, ㅆ, ㅈ, ㅊ'이다. 따라서 '다람쥐, 산토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 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ㅡ'이다. 따라서 '참새'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07 자음과 모음의 이해

단모음으로 'ㅣ, ㅓ, ㅡ, ㅜ, ㅗ, ㅔ, ㅚ, ㅓ, ㅗ, ㅡ, ㅜ, ㅓ'가 있다. 또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파찰음으로 'ㅈ, ㅉ, ㅊ'이 있으며,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는 후설 모음 이자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은 'ㅡ, ㅓ'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는 '추측'이다.

### 08 음운의 이해

'멱'의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오른쪽에 쓰지만, '목'의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아래쪽에 쓴다.

#### 오답 풀이

- ① 'ㅁ'은 첫소리, 'ㅓ'는 가운데소리, 'ㄱ'은 끝소리로, 이들을 차례로 사용하게 되면 '멱'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② '멱'의 가운데소리인 'ㅓ' 대신 'ㅗ'를 사용하면 '목'이 되므로, 자음이 같을 때 모음을 바꾸어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③ '목'과 '곰'에서 첫소리는 'ㅁ'과 'ㄱ', 끝소리는 'ㄱ'과 '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첫소리가 끝소리에, 끝소리가 첫소리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목, 멱'과 '곰, 겸'은 자음이 같지만 모음이 다르고, '목, 곰'과 '멱, 겸'은 모음이 같지만 자음이 다르다. 이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념03 [음운 변동]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본문 21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3-1 01 (1) ○ (2) ○ (3) ✗ 02 (1) ㄱ (2) ㄱ (3) ㄷ  
(4) ㄷ (5) ㄷ (6) ㄷ (7) ㄷ (8) ㄹ (9) ㅁ (10) ㅂ  
(11) ㅂ (12) ㅇ (13) ㄷ (14) ㄷ 03 (1) [바깥] (2) [동  
녁] (3) [히읃] (4) [풀꼴] (5) [오지립] (6) [비온]  
(7) [문박] (8) [밤난] 04 (1) [오시] (2) [비출] (3)  
[풀수페] (4) [나제] (5) [거돈] (6) [오단] (7) [쪼  
차] (8) [꼰빠티]  
03-2 05 (1) 겹받침 (2) 앞 (3) 뒤 (4) 뒤엣것 06 (1)  
[넉] (2) [안] (3) [닥] (4) [삼:] (5) [여덟] (6) [외  
골/웨꼴] (7) [읍] (8) [갑] 07 밟고, 맑게, 넓둥글  
다 08 (1) [안자] (2) [달글] (3) [절머] (4) [힐타]  
(5) [을퍼] (6) [갑쓸]

본문 22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② 09 ① 10 ② 11 ① 12 ③

01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홀받침과 쌍받침의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의 대표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  
되므로, ‘낮’은 [낟]으로 발음해야 한다.

02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대표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있다.

03 ‘솥’의 끝소리 ‘ㅌ’은 7개의 자음 중 ‘ㄷ’으로 발음되므로,  
[손]으로 발음해야 한다.

04 ‘오지립’은 [오지립]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끝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ㄱ, ㄷ, ㄹ, ㅂ,  
ㅇ]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낮’은 [낟]으로, ‘돛’은 [돚]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발음은 같다.  
② ‘키을’은 [키윽]으로, ‘밖’은 [밖]으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발음은  
같다.  
③ ‘살, 장미’는 각각 [살], [장미]로 발음되므로 음절 끝의 발음은 바뀌  
지 않는다.  
④ ‘낮’은 [낟]으로 발음되므로, [히읃]으로 발음되는 ‘히읃’과 음절 끝의  
발음이 같다.

05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  
올 때 끝 자음을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해야 한다. ‘쫓아’는  
어간에 형식 형태소 ‘-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쪼차]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인 ‘에’가 이어지므로  
[사네]로 발음해야 한다.  
② ‘곁’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옷’이 제시되고 있고,  
‘옷’ 뒤에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을’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곁  
을’은 ‘곁’을 [견]으로 발음한 뒤, 뒤의 모음과 연음하여 발음하고,  
다시 ‘옷을’을 [おす]로 발음하여 [거도슬]로 발음해야 한다.  
④ ‘풀숲에서’는 실질 형태소인 ‘풀+숲’에 형식 형태소(조사)인 ‘에서’  
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풀수페서]로 발음해야 한다.  
⑤ ‘밭 아래로’는 실질 형태소 ‘밭’ 뒤에 실질 형태소인 ‘아래’가 이어지  
고 있으므로, ‘밭’을 [밭]으로 발음한 뒤, 뒤의 모음 ‘아’와 연음하여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밭 아래로’는 [바다래로]로 발음해야 한다.

#### 헷갈려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모두 이어지는 경우  
‘겉옷’처럼 실질 형태소 ‘곁’과 실질 형태소 ‘옷’, 그리고 형식  
형태소인 ‘을’이 결합된 경우 헷갈리기 쉽다. 이 경우에는 뒤의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것을 먼저 발음한 뒤, 다  
시 앞의 실질 형태소와 뒤의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를 발  
음하면 된다. 즉 ‘옷을’을 [おす]로 발음한 뒤, 앞의 ‘곁’을 홀받침  
의 발음인 [견]과 뒤의 [おす]를 이어서 발음하면 된다. 따라서  
[거도슬]이 올바른 발음이 되는 것이다.

06 ‘꽃 위’에서 ‘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  
하므로 앞의 ‘꽃’을 대표음 [꼰]으로 발음한 후 연음하여  
발음해야 한다([꼰위] → [꼬뒤]).

#### 오답 풀이

- ①, ③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끝  
자음을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해야 한다(옷을 → [おす], 앞으로 →  
[아프로]).  
④, ⑥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인 어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끝 자  
음을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해야 한다(꽃아 → [꼬자], 꺽아 → [끼끼]).

07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므로, ‘밟다’는 [밥:  
파]로 발음해야 한다. ④의 ‘외곬’은 [외꼴]로도 발음된다.

08 겹받침 ‘리, ㅕ, ㅕ’은 단어의 끝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은 ‘닭장[닭짱]’이다.

09 ‘넓–’은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0 용언의 어간 받침소리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맑게’는 [말께]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ㄱ]으로  
발음된다.

11 '닭을'은 겹받침이 사용된 단어인 '닭'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므로, '닭'의 겹받침 'ㄹ' 중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달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② '앉아서는'은 '앉'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고 있으므로, '앉'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안자서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③ '핥아'는 '핥'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고 있으므로, '핥'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핥타]로 발음해야 한다.
- ④ '값을'은 '값'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가 결합되고 있으므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갑쓸]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갑쓸]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때문이다.
- ⑤ '넋이'는 '넋'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가 결합되고 있으므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넉씨]로 발음해야 한다. 이때 [넉씨]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때문이다.

12 받침 뒤에 모음 'ㅏ,ㅓ,ㅗ,ㅜ,ㅡ'들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 올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닭 앞에'는 '닭'이 [닥]으로 발음되므로, 연음에 따라 [다가페]로 발음해야 한다.

**개념04  
[음운 변동]****음운 동화**

본문 25쪽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4-1** 01 (1) [멍는] (2) [궁물] (3) [궁는] (4) [온맵씨]  
 (5) [꼰망울] (6) [잠는] (7) [남물] (8) [온만추다]  
 02 (1) [담:녁] (2) [침:냑] (3) [왕능] (4) [강능] (5)  
 [대:통녕] 03 (1) [백노] → [뱅노] (2) [협녁] → [험  
 녁] (3) [막논] → [망논] (4) [석뉴] → [성뉴] (5)
- 04-2** 04 (1) [칼랄] (2) [달련] (3) [실:룬] (4) [찰라] (5)  
 [할:라산] (6) [달라라] (7) [광:할루] (8) [쿨라무]  
 05 (1) [실라] (2) [물랄리] (3) [설:릴] (4) [똘른]
- 04-3** 06 (1) [구지] (2) [마지] (3) [바치] (4) [꼬치] (5)  
 [미:다지] (6) [땀바지] (7) [벼흘치] (8) [흘치다]  
 07 (1) [구티다] → [구치다] (2) [다티다] → [다치  
 다] (3) [무티다] → [무치다] 08 (1) [파치다] (2)  
 [부치다] (3) [고지]

본문 26쪽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① 06 ④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① 12 ②

01 제시된 내용은 비음화에 해당한다. '줄넘기'는 유음화가 일어나 [줄럼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은 [궁불], ②는 [잠는], ③은 [음는], ⑥는 [멍는다]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02 '광한루'는 [광:할루]로 발음된다.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교체되는 유음화에 해당된다.

**오답 풀이**

- ①은 [밤불], ②는 [왕능], ③은 [침:냑], ④는 [던문]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03 '맞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맞는]으로 발음한 뒤, 비음화에 따라 [만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꽃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꽃망울]로 발음한 뒤, 비음화에 의해 [꼰망울]로 발음된다.
- ② '꺾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꺾는]으로 발음한 뒤, 비음화에 의해 [강는]으로 발음된다.
- ③ '담력'은 비음화에 의해 [담:녁]으로 발음된다.
- ④ '대통령'은 비음화에 의해 [대:통녕]으로 발음된다.

04 '앞마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암마당]으로 발음되고, 받침 'ㅁ'은 비음 'ㅁ'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므로,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이는 비음화에 해당된다.

05 '강릉'은 [강능]으로 발음되므로 ⑦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국민'은 [궁민]으로, ③ '붙는'은 [분는]으로, ④ '흙만'은 [홍만]으로,  
 ⑤ '값 매기다'는 [감 매기다]로 각각 발음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 받침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6 '핥는지'는 [핥론지]로 발음되는데, 이는 'ㄹ+ㄴ → [ㄹ]+  
 [ㄹ]'로 바뀌는 유음화에 해당된다.

**오답 풀이**

- ①의 '십 리'는 [심니]로, ②의 '항로'는 [항노]로, ③의 '종로'는 [종노]로,  
 ⑤의 '맑며느리'는 [만며느리]로 발음된다. 이는 비음화에 해당된다.

07 '난로'는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앞의 'ㄴ'이 'ㄹ'로 바뀌어  
 [날:로]로 발음되므로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협력'은 [협녁]으로 비음화가, ③ '뚫는'은 [똘른]으로 순행적 유음화  
 가, ④ '달님'은 [달림]으로 순행적 유음화가, ⑤ '찰나'는 [찰라]로 순행

적 유음화가 각각 일어난다.

**08** <보기>의 ①~④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로, ‘물난리 [물랄리], 향는[할른]’도 유음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동원령’은 [동:원녕]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09** ①의 ‘한라산’, ②의 ‘곤란’, ③의 ‘산림’, ④의 ‘대관령’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⑤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막론[망논]’을 찾아볼 수 있지만,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10**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형태소인 ‘잔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의 ‘솔이’는 [소치]로, ②의 ‘맏이’는 [마지]로, ③의 ‘미닫이’는 [미다지]로, ⑤의 ‘낱낱이’는 [난:나치]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이다.

**11** ‘마디’와 같이 한 형태소 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②의 ‘밭이’는 [바치]로, ③의 ‘여닫이’는 [여:다지]로, ④의 ‘해돋이’는 [해도지]로, ⑥의 ‘훑이다’는 [흘치다]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2** ‘붙이다’는 받침 ‘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된 것으로, [부치다]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보기>의 설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개념05 [음운 변동]

### 음운 축약, 음운 탈락, 음운 첨가

#### 1 단계 | 개념 다잡기

**05-1** 01 먹히다, 않고, 달고 02 (1) [구콰] (2) [이팍]  
(3) [추카] (4) [나카산] (5) [발피다] (6) [조피다]  
(7) [오탄별] (8) [나탄때]

**05-2** 03 (1) 가니 (2) 조는 (3) 둉그오 (4) 어지니 04  
(1) 소나무 (2) 바느질 (3) 나날이 (4) 부삽 05 (1)  
[나은] (2) [노아] (3) [빠아서] (4) [편차나] 06  
(1) 담가 (2) 건너서 (3) 서 (4) 갔다

**05-3** 07 (1) [담:뇨] (2) [훈니불] (3) [맨님] (4) [생년필]  
(5) [콩년] (6) [내:봉냑] (7) [영엄농] (8) [궁민눌  
리] 08 (1) [물냑] → [물락] (2) [솔닙] → [솔립]  
(3) [불녀우] → [불려우] (4) [서울녁] → [서울력]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③ | 02 ③ | 03 ⑤ | 04 ③ | 05 ③ | 06 ⑤ | 07 ④ |
| 08 ③ | 09 ④ | 10 ② | 11 ⑤ | 12 ⑤ | 13 ① | 14 ⑤ |
| 15 ② | 16 ③ |      |      |      |      |      |

**01** <보기>는 자음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좋아’는 어간 ‘좋-’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앞의 자음 ‘ㅎ’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받침 ‘ㅅ, ㅈ, ㅊ, ㅌ’의 경우

받침 ‘ㅅ, ㅈ, ㅊ, ㅌ’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므로, ‘ㄷ’과 ‘ㅎ’이 결합하여 자음 축약이 일어나게 된다.

예 옷 한 벌[오탄벌], 낫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 하다[수타다]

**02** ‘싫어도’는 [실어도] → [시리도]로 발음되며 ‘ㅎ’ 탈락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박하사탕’은 [바카사탕]으로, ② ‘국화’는 [구콰]로, ④ ‘닳지’는 [달치]로, ⑤ ‘급하게’는 [그파게]로 각각 발음되며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03** ‘놓고[노코], 놓고[다코], 않던[안던], 쌓지[싸찌]’는 ‘ㅎ’이 앞에 올 때 자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이고, ‘넓히다[널피다]’는 ‘ㅎ’이 뒤에 올 때 자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04** <보기>는 ‘ㄹ’ 탈락, ‘ㅎ’ 탈락이 일어나는 사례로, 둘 다 음운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많고’는 [만:코]로 발음되며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마소’는 ‘말+소’가 결합된 합성어로,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ㄹ’ 탈락이 일어난다.  
② ‘낳은’은 [나은]으로 발음되므로 ‘ㅎ’ 탈락이 일어난다.  
④ ‘조는’은 ‘졸-+-는’으로 분석되므로 ‘ㄹ’ 탈락이 일어난다.  
⑤ ‘어지니’는 ‘어질-+-니’로 분석되므로 ‘ㄹ’ 탈락이 일어난다.

**05** ‘닳지’는 앞의 ‘ㅎ’과 뒤의 자음 ‘ㅈ’이 결합하여 [달치]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에 해당하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06** ‘법학’은 [벼파]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이 아니라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따님’은 ‘딸+–님’이 결합한 단어로 ‘ㄹ’ 탈락이 일어난다.  
② ‘바느질’은 ‘바늘+–질’이 결합한 단어로 ‘ㄹ’ 탈락이 일어난다.  
③ ‘둥그니’는 ‘둥글-+-니’로 분석되므로 ‘ㄹ’ 탈락이 일어난다.

④ '�述니다'는 '불-+-ㅂ니다'로 분석되므로 'ㄹ' 탈락이 일어난다.

- 07** '셨다'는 '서-+-었다'로 분석할 수 있다. 모음 'ㅓ'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 'ㅓ'가 탈락한 것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ㅡ' 탈락이 일어난 경우이다.

- 08** <보기>는 'ㅡ' 탈락이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건너-+-어서'가 결합한 '건너서'는 동일 모음이 탈락한 사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겼다'는 '꼬-+-었다'가 결합된 것으로, ② '텄다'는 '트-+-었다'가 결합된 것으로, ④ '나빠'는 '나쁘-+-아'가 결합된 것으로, ⑤ '들렸다'는 '들르-+-었다'가 결합된 것으로 각각 'ㅡ' 탈락이 일어났다.

- 09** <보기>는 'ㄴ' 첨가에 대한 설명이다. '등용문'은 [등용문]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 10** ① 담요[담:뇨], ③ 소독약[소동냑], ④ 솜이불[솜:니불], ⑤ 집안일[지반닐]은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나지만, '송별연'은 [송:벼련]으로 음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 11** '한여름'은 [한녀름]으로 발음되므로 'ㄴ' 음은 [ㄴ]으로 발음한다.

#### 오답 풀이

① '솔잎'은 [솔닙] → [솔립]으로, ② '물약'은 [물냑] → [물락]으로, ③ '불여우'는 [불녀우] → [불려우]로, ④ '휘발유'는 [휘발뉴] → [휘발류]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발음 현상이 일어난다.

- 12** '달나라'는 비음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교체되어 [달라라]로 발음된다. 이는 유음화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국민'은 [궁민]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② '해돋이'는 [해도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③ '눈요기'는 [눈뇨기]로 발음되는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④ '꽃히다'는 [꼬치다]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므로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 13** '들일'은 [들:닐]에서 [들:릴]로, '물엿'은 [물년]에서 [물련]으로 발음되므로, 공통적으로 음운 첨가('ㄴ' 첨가)와 음운 교체(유음화)가 일어난다.

- 14** '급행열차'는 [그팽열차]로 음운 축약이 일어난 뒤, 다시 [그팽널차]로 음운 첨가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꽃잎'은 [꽃입] → [꽃닙] → [꼰닙]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음절

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음운 첨가('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② '많다'는 [만:타]로 발음되므로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③ '덧문'은 [덧문] → [던문]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닫히다'는 [다티다] → [다치다]로 발음되므로, 음운 축약과 음운 교체(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헷갈려요! 음운 변동의 양상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한 번만 일어난 수도 있지만, 두 번 이상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음 과정에 따라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 '물엿'의 경우 [물열]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뒤, [물년]으로 'ㄴ' 첨가가 일어남.

- 15** '좋다[조타]'에서 'ㅎ'과 'ㄷ'이 'ㅌ'으로 자음이 축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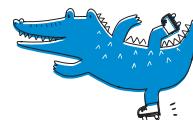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그렇게[그러케]'에서 'ㅎ'과 'ㄱ'이 'ㅋ'으로 자음이 축약된다.  
 ③ '교육열[교육낼]'에서 'ㄴ'이 추가된다.  
 ④ '커서'는 '크-+-어서'에서 모음 'ㅡ'가 탈락이 된다.  
 ⑤ '굳이[구지]'에서 'ㄷ'이 'ㅣ'와 결합해 'ㅈ'이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16** '영업용'은 '영업 + 용'으로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뒤 단어의 첫소리가 '요'이므로 'ㄴ'이 첨가된다. 그리고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앞 단어의 받침소리 'ㅁ'이 'ㅂ'으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 ①,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⑤ 'ㄴ' 첨가 현상만 일어난다.



### 3 단계 | 실력 완성하기

01 ③ 02 ③ 03 ⑤ 04 합성어나 한 형태소 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05 ⑤ 06 ④ 07 ③ 08 ④ 09 두 모음이 만나서 한 모음이 탈락한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10 ⑤ 11 ④ 12 ③ 13 ④ 14 ④ 15 ① 16 ② 17 ⑧ 음운 첨가 ⑥ 음운 탈락 ⑦ 음운 교체 ⑧ 음운 축약 18 ⑤ 19 ⑤ 20 ④

#### 01 출받침, 쌍받침 발음의 이해

①을 통해 각 끝 자음이 대표음 ‘ㄷ’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으므로, 끝 자음의 표기와 발음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02 겹받침 발음의 이해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므로, ‘밟고’는 [밥:꼬]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여덟’은 [여델]로 발음한다.
- ② ‘닭’은 [닭]으로 발음한다.
- ④ ‘맑지’는 [막찌]로 발음한다.
- ⑤ ‘외곬’은 [외골]로 발음한다. ‘외곬’은 [웨골]로도 발음한다.

#### 03 받침의 발음 이해

제15항에 따라 ‘닭 울음’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제시되므로, 겹받침을 대표음 ‘ㄱ’으로 바꾼 뒤,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다구름]으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잎을’은 출받침 ‘잎’ 뒤에 조사 ‘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13항에 따라 [이풀]로 발음해야 한다.
- ② ‘숲 안’은 ‘숲’ 뒤에 실질 형태소 ‘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15항에 따라 ‘숲’을 대표음인 [숨]으로 바꾼 뒤,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수반]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③ ‘깎아’는 쌍받침 ‘깎’ 뒤에 어미 ‘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13항에 따라 [까까]로 발음해야 한다.
- ④ ‘넓이’는 겹받침 ‘넓’ 뒤에 접미사 ‘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14항에 따라 [널비]로 발음해야 한다.

#### 04 구개음화의 이해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할 때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현상이다. ⑦과 같은 합성어나 ⑨과 같은 한 형태소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05 유음화의 이해

‘분리’는 [불리]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첩니’는 [첩니]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⑦인 ‘논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을 만나 [놀리]로 발음된다.
- ② ⑨인 ‘분류’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을 만나 [불류]로 발음된다. 이는 역행 동화에 해당된다. 그리고 ⑦ ‘논리’는 [놀리]로, ⑨ ‘권력’은 [걸력]으로 발음되는데 역행 동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⑨은 ⑦과 동화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③ <보기 1>에서 역행 동화는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를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은 [걸력]으로 발음되는데 점에서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④ ‘달님’은 [달림]으로, ‘물놀이’는 [물로리]로 발음되므로, ⑨, ⑩은 ‘ㄹ’ 뒤에 이어지는 ‘ㄴ’이 ‘ㄹ’로 바뀌는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헷갈려요! 동화의 방향

동화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상호 동화로 나눌 수 있다.

|          |  |
|----------|--|
| 순행<br>동화 |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⑨ 칠내찰라                        |
| 역행<br>동화 |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⑩ 곤란[꼴란]                      |
| 상호<br>동화 | 인접하는 두 개의 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닮게 되는 현상. 앞 발음과 뒤의 발음이 모두 변함. ⑪ 국력 → [국녁] → [궁녁] |

#### 06 비음화, 유음화의 이해

<보기>의 ⑦은 비음화, ⑨은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닫는’은 ‘ㄷ’이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단는]으로, ‘훈련’은 비음 ‘ㄴ’이 ‘ㄹ’ 앞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훈:련]으로 발음되므로 [단는]은 ⑦ 비음화, [훈:련]은 ⑨ 유음화의 예에 해당된다.

#### 오답 풀이

- ① ‘먹물’은 [멍물]로 발음되어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꽃잎’은 [꼰닙]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② ‘끌이’는 [끄치]로 발음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신랑’은 [실랑]으로 발음되어 유음화가 일어난다.
- ③ ‘입는’은 [임는]으로, ‘막내’는 [망내]로 발음되어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⑤ ‘송이불’은 [송니불]로 발음되어 ‘ㄴ’ 첨가가 일어나지만, ‘물난리’는 [물랄리]로 발음되어 유음화가 일어난다.

#### 07 구개음화의 이해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할 때 구개음인 ‘ㅈ, ㅊ’이 되는 현상이다. ⑦을 통해 ‘군히다’, ‘닫히다’는 ‘ㄷ’과 ‘ㅎ’이 결합하여 [구티다], [다티다]로 바뀐 뒤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⑦의 ‘맏이’와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로, ‘ㅣ’ 앞의 끝



소리가 ‘ㄷ’과 ‘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⑤의 ‘밭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로 발음되고, ‘밭을’은 조사 앞의 ‘ㅌ’이 연음되어 [바틀]로 발음한다. 따라서 ‘ㅌ’이 특정한 모음인 ‘ㅣ’와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④ ⑥의 ‘밀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치]로 발음된다. 그런데 ‘끓인 사’는 실질 형태소 ‘끓’ 뒤에 실질 형태소 ‘인사’가 와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표음 [ㄷ]이 뒤의 모음에 연음되어 [꼬дин사]로 발음한다. 따라서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⑦의 ‘해돋이’는 ‘해돋-+-이(해+돋-+-이)’로 분석되며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해도지]로 구개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견디다’는 ‘견디-+-다’로 이루어져 있어 ‘견디-’가 하나의 형태소여서 [견디다]로 발음되고 있다. 이를 볼 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08 자음 축약의 이해

〈보기〉에 제시된 음운 현상은 자음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으므로’는 ‘ㅎ’이 탈락하여 [오르므로]로 발음되는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 ① [아파], ② [조코], ③ [추카], ⑤ [나코]로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 09 모음 탈락의 이해

‘바빠서’는 ‘바쁘-+-어서’가 결합한 경우로, ‘-’를 끝소리로 가지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 ‘-’가 탈락한 음운 현상이고, ‘매라’는 ‘매-+-어라’가 결합한 경우로, 끝소리 ‘-’ 뒤에서 모음 ‘-’가 탈락한 경우이다.

## 10 자음 탈락의 이해

‘우짖다’는 ‘울다’와 ‘짖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⑤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살다’가 ‘사네, 사세, 사오’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살’의 ‘ㄹ’이 탈락함을 알 수 있다.
- ② ‘사네, 사세, 사오’와 달리 ‘살다’가 ‘-고’와 결합할 때는 ‘살고’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특정 자음인 ‘ㄱ’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의 ‘아드님’은 파생어, ‘마소’와 ‘화살’은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함을 알 수 있다.
- ④ ⑤의 ‘아드님’, ‘마소’, ‘화살’은 ‘ㄹ’ 소리가 나지 않는 대로 적는 것에 서 알 수 있다.

## 11 자음 탈락의 이해

‘비 오지 않기를 바랐다.’의 ‘않기’는 [안키]로 발음되는데, 이는 ‘ㅎ’과 ‘ㄱ’의 축약에 의한 것이므로 ‘ㅎ’ 탈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ㅎ’ 탈락의 사례로 ‘넣었다[너얼따]’는 들 수 있지만, ‘하얗다’는 [하:

야타]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 ② ‘쌓이다’는 [싸이다]로 음운 탈락이 일어나므로, 〈보기〉에 설명된 것과 같이 음운의 수가 줄게 된다.
- ③ ‘좋은’은 ‘ㅎ’이 탈락하여 [조은]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보기〉에서 ‘ㅎ’ 탈락은 발음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고 하였으므로 ‘좋은’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좁히다[조피다]’에서는 자음 축약이, ‘좋아요[조아요]’에서는 자음 탈락이 일어난다.

## 12 ‘ㄴ’ 첨가의 이해

‘콩엿’은 ‘콩’과 ‘엿’이 결합하여 [콩년]으로 발음되므로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솜이불’은 ‘솜’과 ‘이불’이 결합한 합성어로 [솜:니불]로 발음되므로 ⑥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② ‘솔잎’은 ‘ㄴ’이 첨가되어 [솔닙]으로 발음된 뒤, 다시 [솔립]으로 발음되므로 ⑥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④ ‘갈 일’은 ‘ㄴ’이 첨가되어 [갈:닐]으로 발음된 뒤, 다시 [갈릴]로 발음되므로 ⑥, ⑦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⑤ ‘서울역’은 ‘ㄴ’이 첨가되어 [서울녁]으로 발음된 뒤, 다시 [서울력]으로 발음되므로 ⑥와 관련된다. ‘서른 여섯’은 ‘ㄴ’이 첨가되어 [서른 녀섣]으로 발음되므로 ⑦와 관련된다.

## 13 음운 변동의 이해

‘꽃 위’에서 ‘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있으므로, 대표음 [꼰]으로 바꾼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꽃 위’는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솔+나무’가 ‘소나무’가 되는 것은 음운 첨가가 아닌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 ② ‘걸이’가 [거치]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 축약이 아니라 음운 교체(구개음화)에 해당한다.
- ③ ‘맏형’이 [마텅]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 탈락이 아닌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 ⑤ ‘색연필’이 [생년필]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4 음운 변동의 이해

⑦은 첨가, ⑧은 교체, ⑨은 탈락, ⑩은 축약에 대한 설명이다. ④에서 ‘구급약[구:금냑]’은 ‘ㄴ’이 첨가된 후 ‘ㅂ’이 ‘ㄴ’과 만나 ‘ㅁ’으로 교체되었다. 물엿[물련]은 ‘ㄴ’이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교체되었으며, ‘ㅅ’은 ‘ㄷ’으로 교체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한여름[한녀름]’은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⑦에 해당하지만, ‘설날 [설:랄]’은 유음화가 일어나 ⑧에 해당한다.
- ② ‘좋아[노야]’는 ‘ㅎ’이 탈락하므로 ⑨에 해당하지만, ‘법학[버팍]’은 ‘ㅎ’이 앞의 ‘ㅂ’과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되므로 ⑩에 해당한다.

- ③ ‘앉히다[안치다]’는 ‘ㅎ’이 앞의 ‘ㅈ’과 축약되어 ‘ㅊ’으로 발음되므로 ②에 해당하지만, ‘끓이다[끄리다]’는 ‘ㅎ’이 탈락하므로 ④에 해당한다.
- ⑤ ‘닳다[달타]’는 ‘ㅎ’이 뒤의 ‘ㄷ’과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되므로 ④에 해당한다. 그리고 ‘꿋꿋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꿋꿋 하다]로 발음된 뒤, ‘ㅎ’이 앞의 ‘ㄷ’과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되므로, ④과 ⑤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15 음운 변동의 이해

<보기 1>의 자음 체계표를 보면 a는 파열음 ‘ㅋ’이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의 예이고, b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의 예이다. 비음화와 유음화 모두 소리 내는 방식이 바뀌는 현상이다. c는 끝소리 ‘ㄷ’이 접미사 ‘ㅣ’ 앞에서 ‘ㅈ’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의 예이다.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ㄷ’이 센입천장소리이면서 파찰음인 ‘ㅈ’로 바뀌었으므로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식이 모두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 16 음운 변동의 이해

‘듬직하다[듬지카다]’의 경우 ‘ㄱ’과 ‘ㅎ’이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⑦과 ⑧에 해당된다.

### 오답 풀이

- ① ‘싫다’는 자음 ‘ㅎ’이 뒤의 ‘ㄷ’과 축약되어 [실타]로 발음되므로, ⑦과 ⑧에 해당된다.
- ③ ‘을-+ -는’은 ‘ㄹ’이 탈락하여 ‘우는’이 되므로, ⑨과 ⑩에 해당된다.
- ④ ‘크-+-어서’는 모음 ‘-’가 탈락되어 ‘커서’가 되므로, ⑨과 ⑩에 해당된다.
- ⑤ ‘가-+-았다’는 모음 ‘ㅏ’가 탈락되어 ‘갔다’가 되므로, ⑨과 ⑩에 해당된다.

## 17 음운 변동의 이해

ⓐ의 ‘맨입’은 ‘ㄴ’이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첨가에 해당하고, ⓑ의 ‘쌓아’는 ‘ㅎ’이 탈락하여 [싸아]로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의 ‘진리’는 뒤의 유음인 ‘ㄹ’의 영향으로 앞의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어 [질리]로 발음되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의 ‘낙하산’은 ‘ㅎ’이 앞의 ‘ㄱ’과 축약되어 [나카산]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 18 음운 변동의 이해

ⓐ은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없던 음운 ‘ㄴ’이 추가된 것이므로 첨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⑦은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바뀐 유음화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 ② ⑧은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한 자음 탈락에 해당한다.

- ③ ⑨은 뒤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앞의 ‘ㄱ’이 비음인 ‘ㅇ’으로 바뀐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 ④ ⑩은 ‘ㅎ’이 뒤의 ‘ㅈ’과 축약되어 ‘ㅊ’으로 발음되는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 19 음운 변동의 이해

‘웃 한 별[오탄별]’이 발음될 때는 ‘웃’ 뒤에 오는 ‘한’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웃’을 대표음 [온]으로 발음한 후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20 음운 변동의 이해

‘부엌에[부어케]’는 ‘엌’의 ‘ㅋ’이 연음되어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음운 변동의 용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신라’는 유음화가 일어나 [실라]로 발음되므로 인접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교체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낫’은 [낟]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것이다.
- ② ‘넣어’는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여 [너어]로 발음되는 자음 탈락에 해당한다.
- ③ ‘잡화’는 ‘ㅂ’과 ‘ㅎ’이 합쳐져 ‘ㅍ’으로 축약되어 [자포]로 발음되는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 ⑤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노]로 발음되는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눈요기’도 ‘ㄴ’이 첨가되어 [눈뇨기]로 발음되는 음운 첨가에 해당한다.



## II

## 단어와 품사

개념01  
[단어의 짜임]

## 형태소

본문 41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1-1 01 (1) ○ (2) × (3) ○ 02 (1) 6 (2) 7 (3) 9 03  
 (1) 자립 형태소 (2) 의존 형태소 (3) 자립 형태소  
 (4) 의존 형태소 (5) 의존 형태소 (6) 의존 형태소  
 04 (1) • 자립 형태소: 여름, 장미 / • 의존 형태소:  
 예, 가, 피, 었, 다 (2) • 자립 형태소: 저, 멀리, 강  
 / • 의존 형태소: 깊, 고, 넓, 은, 을, 보, 았, 다 (3)  
 • 자립 형태소: 공, 얼굴, 명 / • 의존 형태소: 예,  
 맞, 아, 이, 퍼렇, 게, 이, 들, 었, 다
- 01-2 05 (1) 형식 형태소 (2) 실질 형태소 (3) 실질 형태소 (4) 실질 형태소 (5) 형식 형태소 06 (1) • 실질 형태소: 오늘, 일찍, 잠, 자 / • 형식 형태소: 은, 을, 았, 다 (2) • 실질 형태소: 원숭이, 엉덩이, 빨갛 / • 형식 형태소: 의, 는, 다 (3) • 실질 형태소: 들판, 꽃, 피, 있 / • 형식 형태소: 예, 이, 어, 었, 다 (4) • 실질 형태소: 친구, 함께, 군것, 하 / • 형식 형태소: 와, 질, 을, 었, 다

본문 42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8 ③ 09 ③ 10 ③ 11 ⑤ 12 ③

- 01 무조건 단어를 나눈다고 해서 형태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을’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더 나눈 ‘가’와 ‘을’은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형태소가 될 수 없다.

헷갈려요!

두 음절 이상이더라도 형태소로 쪼갤 수 없는 이유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에 해당하므로, 두 음절 이상이  
 라도 하나의 음절로 쪼개어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면 형태  
 소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없다. 가령 ‘강산’은 ‘강’과 ‘산’으로 쪼개  
 어도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지만, ‘장미’는 ‘장’과 ‘미’로 쪼개  
 면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쪼개서는 안 된다.

- 02 ‘보름달이 엄청 밝다.’는 ‘보름/달/이/엄청/밝/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형태소의 개수는 6개이다.

- 03 형태소를 분석할 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사과가 매우 달았다.’는 ‘사과/가/매우/달/았/다’로 분석할 수 있다.
- 04 자립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므로 ③과 같이 분석해야 한다.

- 05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즉 자립 형태소는 ‘꽤’이다. 나머지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먹었다’의 ‘먹-’은 용언의 어간으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② ‘밥을’의 ‘을’은 조사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③ ‘배었다’의 ‘-다’는 어미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④ ‘놀랐다’의 ‘놀-’은 용언의 어간으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06 ‘덮어놓다’는 ‘덮-+-어+놓-+-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물병’은 자립 형태소 ‘물’과 ‘병’이 결합한 단어이다.
- ② ‘이슬비’는 자립 형태소 ‘이슬’과 ‘비’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③ ‘맨주먹’은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접사 ‘맨-’과 자립 형태소인 ‘주먹’이 결합한 단어이다.
- ④ ‘군소리’는 ‘쓸데없는,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의존 형태소 ‘군’과 자립 형태소인 ‘소리’가 결합한 단어이다.

- 07 ‘팥죽이 설탕처럼 달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팥/죽/이/설탕/처럼/달/다’가 된다. 따라서 자립 형태소는 ‘팥’, ‘죽’, ‘설탕’ 3개이다.

- 08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가 있다 ③에서 조사 ‘께서’가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귀뚜라미’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② ‘주로’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④ ‘꺼서’의 ‘꺼-’는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⑤ ‘주셨다’의 ‘주-’는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09 ‘그, 나, 살구, 주-’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는, 에게, 끗-, 를, -었-, -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 10 ‘가죽’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나머지는 형식 형태소이다.

11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이다. ① '밤하늘'에서는 '밤'과 '하늘'이라는 실질 형태소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의 '밤하늘'은 '밤'과 '하늘'로 나눌 수 있고, ④의 '잠꾸러기'는 '잠'과 '-꾸러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⑤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한 단어에 해당하고, ⑥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라 할 수 있다.
- ③ ⑥는 '잠+-꾸러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이면서 훌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⑦는 '없-+었-+다'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었-', '-다'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④ ⑧의 '없-'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훌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접사

'접사'는 어근에 붙어 어떤 뜻을 더해 주거나 품사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형식 형태소이다. 접사는 어근의 뜻을 한정하는 접사이지만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어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접사는 놓이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① 접사의 위치에 따른 분류

|     |   |
|-----|---|
| 접두사 | 어근의 앞에 붙어 특정하는 뜻을 더함.<br>예) 덧신의 '덧-'('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 접미사 | 어근의 뒤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함.<br>예) '덮개'의 '-개'('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 ② 접사의 기능에 따른 분류

|           |   |
|-----------|---|
| 한정적<br>접사 | 어근에 뜻을 더하거나 제한(한정)하는 접사<br>예) 맨주먹의 '맨-'('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 지배적<br>접사 | 어근의 품사까지 바꾸는 접사<br>예) 먹이의 '-이'(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자랑스럽다의 '-스럽다'('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12 '나는 왕만두와 김밥을 먹었다.'는 '나/는/왕/만두/와/김/밥/을/먹/었/다'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왕만두, 김밥' 외에도 '먹었다'가 있다.

## 개념02 [단어의 짜임]

### 어근, 접사

본문 45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2-1 01 (1) ○ (2) × (3) ○ (4) ○ 02 (1) 둘 (2) 한 (3) 한 (4) 둘 (5) 둘 (6) 한 (7) 둘 (8) 한 (9) 둘 (10) 한 (11) 둘 (12) 한 03 (1) 감자 (2) 밤 (3) 알 (4) 옷, 걸 (5) 책, 가방 (6) 여름 (7) 숨 (8) 고기 (9) 흔들 (10) 겨울, 바람 (11) 공부 (12) 심술
- 02-2 04 군식구, 헛기침 05 (2) ○ (3) ○ (4) ○ (7) ○ (9) ○ (10) ○ 06 (1) 접두 (2) 접미 (3) 접두 (4) 접두 (5) 접미 (6) 접미 (7) 접두 (8) 접미 (9) 접두 (10) 접미 07 (1) 훌 (2) 이 (3) 헛 (4) 풋 (5) 개 (6) 거리다 (7) 롭다 (8) 스럽다

본문 46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① 09 ④ 10 ③ 11 ② 12 ③

01 '먹이다'는 '먹-+아-+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어근은 '먹-'이라 할 수 있다. '먹이-'는 어간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어근과 어간의 구분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고,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킨다. 특히 용언에서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근과 어간을 잘 구분해야 한다.

- 어근과 어간의 일치: '먹다'의 '먹-'은 어근이면서 어간임.
- 어근과 어간의 불일치: '먹이다'의 어근은 '먹-', 어간은 '먹이-'임. → 사동사나 피동사의 경우가 대부분임.

02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가을, 나무, 하늘'만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밤낮'은 '밤'과 '낮'이라는 2개의 어근이 사용되었고, '여닫다'는 '열-'과 '닫-'이라는 2개의 어근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집안'은 '집'과 '안'이라는 2개의 어근이 사용되었다.

03 '떡라면'은 '떡'과 '라면'이라는 두 개의 어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예쁘'은 '예쁘-+-ㄴ'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어근은 '예쁘-'라 할

수 있다.

- ② '얼밤'은 접사인 '알-'(‘겉을 뒤에 쌓거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의 뜻을 지님)과 체언인 '밤'이 결합한 파생어로, '밤'이 어근에 해당한다.
- ④ '지우개'는 '지우다'의 '지우-'에 접미사 '-개('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지님.)가 결합한 파생어로, '지우-'가 어근에 해당한다.
- ⑤ '부채질'은 실질 형태소 '부채'에 접미사 '-질('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지님.)이 결합한 파생어로, '부채'가 어근에 해당한다.

**04** '맑았다'는 '맑-+-았-+-다'로 분석되므로, 어근은 '맑-'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⑥는 단일어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어근이 존재한다. 그리고 ④의 '가위질'은 실질 형태소 '가위'와 접사인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멋쟁이'는 실질 형태소 '멋'과 접사인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⑦에서도 하나의 어근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⑥는 합성어이므로 두 개의 어근이 존재한다. 그리고 ⑧의 '돌아가다'는 '돌(다)'과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이 역시 두 개의 어근이 존재한다.
- ⑤ ⑨, ⑩와 ⑪의 '맑았다'는 어근이 하나, ⑫와 ⑬의 '돌아가다'는 어근이 두 개 있으므로 이들은 어근이 하나 이상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

**05** '군밤'은 '불에 구워 익힌 밤'이라는 의미로, '굽(다)-+-ㄴ+밤'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군밤'에서는 접두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06** '밤고구마'는 '밤'과 '고구마'가 결합한 단어로, '밤'과 '고구마' 모두 어근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의 '날고기'에서는 접두사 '날-'이, ③의 '치솟았다'에서는 접두사 '치-'가, ④의 '헛수고'에서는 접두사 '헛-'이, ⑤의 '한겨울'에서는 접두사 '한-'이, '맨발'에서는 접두사 '맨-'이 사용되었다.

**07** '군말'은 '군-+말'로 분석될 수 있으며, '군-'은 '쓸데없는, 덫붙은'이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로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논밭: 논(어근)+밭(어근)
- ② 심술쟁이: 심술(어근)+-쟁이(접미사)
- ④ 마음껏: 마음(어근)+-껏(접미사)
- ⑤ 저녁노을: 저녁(어근)+노을(어근)

**08** '오줌싸개'는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 '-개'가 사용되었다.

**09** ⑪, ⑫ 모두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사용되고 있지만,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 헷갈려요! 접미사의 특성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어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으)ㅁ', '-이', '-기', '-개', '-보' 등이 있고,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하다', 형용사를 만드는 '-스럽다' 등이 있다.

**10** '목걸이'는 '목-+걸(다)-+-이'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물의 뜻을 더하는 의미를 지닌 접미사이다.

**11** <보기>를 통해 동사 어간이나 명사 뒤에 접미사가 붙어 명사와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접미사에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들판'은 체언 '들'과 '판'이 결합된 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모내기'는 '모+내-+-기'가 결합한 파생어로, '-기'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 ② '꿈틀거리며'는 '꿈틀+-거리-+-며'가 결합한 파생어로, '-거리-'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 ④ '싸움'은 '싸우-+-ㅁ'이 결합한 파생어로, '-ㅁ'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 ⑤ '벌이'는 '벌-+-이'가 결합한 파생어로, '-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 개념03 단일어, 복합어 [단어의 짜임]

본문 49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      |  |
|------|--|
| 03-1 | 01 (1) ○ (2) × (3) ○ (4) ○ 02 (1) 5 (2) 7 (3)<br>6 (4) 6 (5) 8 03 (1) 단일 (2) 단일 (3) 복합 (4)<br>복합 (5) 단일 (6) 복합 (7) 복합 (8) 단일   |
| 03-2 | 04 (1) 새해, 밤낮 (2) 산들바람, 불어왔다 (3) 멍들었다 (4) 송이송이 05 (1) 흑백, 여닫다, 오가다, 논밭, 까막끼치 (2) 고무신, 걸어가다, 둘다리 (3) 피땀(노력), 춘추(나이) 06 (1) 파생 (2) 파생 (3) 파생 (4) 합성 (5) 합성 (6) 합성 07 (1) ○ (2) × (3) ○ (4) ○ |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쌀기

- 01 ① 02 ② 03 ① 04 ③ 05 ② 06 ③ 07 ③  
08 ② 09 ④ 10 ④ 11 ③

**01** 문장에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것은 '어절'에 해당한다. 조사는 단어에 해당하지만 체언에 붙여 쓰므로, 문장에서 단어는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③ 실질 형태소 중에서 용언의 어간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므로 단어가 될 수 없다.
- ④ 의존 형태소 중에서 조사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로 인정된다.
- ⑤ '먹다'의 '먹-'과 '잡히다'의 '잡-'은 어근으로, '먹다'와 '잡히다'는 모두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2** '예쁜'은 '예쁘-+-ㄴ'으로, '입었다'는 '입-+-었-+-다'로 분석되므로, '예쁜'과 '입었다'의 어근은 모두 하나이다.

### 오답 풀이

- ① '진희는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 입었다.'를 단어로 나누면 '진희/는/옷장/에서/예쁜/옷/을/꺼내/입었다'가 되므로, 단어의 개수는 9개이다.
- ③ '옷장'은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옷'과 '장'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④ '입었다'는 '입-+-었-+-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⑤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체언과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어로 인정한다. 따라서 조사인 '는, 에서, 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에 해당한다.

**03** '한겨울'은 파생어, '겉옷', '책가방', '돌아가야'는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복합어이다.

**04** ①은 합성어이므로 2개의 어근이 사용되고 있지만, ②은 파생어이므로 1개의 어근만 사용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⑦은 단일어, ③은 합성어, ⑤은 파생어로, ⑧~⑩ 모두 단어에 해당한다.
- ⑥ ⑪의 '햇병아리, 대장장이, 어른스럽다'에서 접사인 '햇-, -장이, -스럽다'를 삭제하면, 단일어 '병아리, 대장, 어른'만 남게 된다.

**05** '많이'는 '많(다)-+-이'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므로 복합어에 해당한다.

**06** '생고기'는 접두사 '생-'에 어근 '고기'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접두사 '생-'은 '의하지 아니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07** '헛디디다'는 어근인 '디디-'에 '잘못'의 의미를 지니는 접

두사 '헛-'이 결합한 파생어에 해당하므로, 어근이 하나만 사용되었다. ④의 '빌어먹다'는 '빌(다)-+-어+먹다'가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헷갈려요!

용언과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합성어 중에는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들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령 '들어가다'는 두 용언인 '들다'와 '가다'가 연결 어미 '-어'를 활용하여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한편 연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경우도 있는데, '검붉다, 높푸르다, 굽주리다'가 이에 해당한다.

**08** ⑦의 '손발'은 '손'과 '발'로 이루어진 대등 합성어이고, ⑨의 '피땀'은 '노력'을 의미하므로 웅합 합성어이다. 그리고 ⑩의 '걸어가다'는 '걸어서 가다'의 의미이므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09** '산딸기'는 어근인 '산'과 어근인 '딸기'가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10** '걸싸개'는 '걸'과 '싸개'가 결합한 합성어로, '싸개'는 원래 동사 어간인 '싸-'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미사가 붙어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걸싸개'는 파생어로 분석할 수 없다.

**11** ③에서는 합성어 '밤낮', '애쓰신다'가 사용되었지만, 파생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달리기'는 '달리-+-기(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② '돌배'는 '돌-(접사)+배'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④ '행복한'의 기본형은 '행복하다'로, '행복하다'는 '행복-+-하다(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또한 '삶'은 '살-+-ㅁ(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⑤ '새하얗다'는 '새-(접사)+하얗다'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개념 01 ~ 03 [단어의 짜임]

## 3 단계

### 실력 완성하기

- 01 ④ 02 ③ 03 ② 04 ⑦과 ①은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⑦은 실질 형태소, ①은 형식 형태소라는 차이점이 있다. 05 ⑤ 06 ④ 07 ③ 08 ③ 09 그 해에 난 10 ④ 11 ⑤ 12 ① 13 ① 14 ② 15 ③ 16 ②

## 01 형태소의 이해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일정한 뜻, 즉 실질적 의미든지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소의 의미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 오답 풀이

- ① 철수/가/집/에/오-/았-/다.
- ② 철수/가/학교/에/가-/았-/다.
- ③ 거울/이/가/고/봄/이/오-/았-/다.
- ④ 기울/하늘/은/구름/한/점/없/이/맑-/았-/다.

#### 헷갈려요!

#### 용언의 형태소 분석

용언은 크게 어간과 어미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형태소를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피었다’의 경우에는 ‘피-/었-/다’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었-’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서 문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왔다’의 경우에는 음운이 축약된 것이므로, 축약 이전의 ‘오-+-았-+-다’를 기준으로 해서 형태소를 분석해야 한다.

## 02 형태소의 이해

‘높-’, ‘푸르-’는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홀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실질 형태소는 ‘하늘, 매우, 높-, 푸르-’로 4개이다.
- ② 형식 형태소는 ‘이, -고, -다’로 3개이다.
- ④ ‘이’는 조사, ‘-고’, ‘-다’는 어미로,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의존 형태소이다. 따라서 모두 홀로 사용될 수 없다.
- ⑤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하늘/이/매우/높/고/푸르/다’로 나눌 수 있다.

## 03 형태소의 이해

‘경찰’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⑦에는 ‘예’라는 답이 적절하다. ‘을’은 조사로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⑮에는 ‘아니요’라는 답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잡’은 용언의 어간으로,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달아나지 못하게 하다.’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⑯에는 ‘예’라는 답이 적절하다.

## 04 형태소의 이해

‘뛰는’은 동사 ‘뛰다’의 어간 ‘뛰-’에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며,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⑪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며, ⑫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 05 형태소의 이해

‘크-, 기쁘-, 주-’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지

만, ‘-었-’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그/새/는/우리/에게/매우/크-/–/기쁘-/–/을/주-/–/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총 14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②, ④ ‘그, 새, 우리, 매우’는 자립 형태소, 자립 형태소에 용언의 어간이 포함된 ‘그, 새, 우리, 매우, 크-, 기쁘-, 주-’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③ ‘는,에게,을’은 조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어미의 형태소 판단

어미 중에는 단어가 아닌 하나의 음운으로만 된 것, ‘-ㅁ’, ‘-ㄴ’, ‘-ㄹ’ 등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형태소로 판단하지 않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이들 어미 역시 문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즉 ‘-ㅁ’은 용언을 명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명사형 어미(접사인 경우도 있음)이고, ‘-ㄴ’과 ‘-ㄹ’은 용언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여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 06 어근과 접사의 이해

‘힘쓰다’는 ‘힘’과 ‘쓰다’가 결합되어 있고, ‘공부하다’는 ‘공부’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힘쓰다’는 두 개의 어근, ‘공부하다’는 한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의 ‘여름, 사과’는 단일어이고, ‘먹다’는 어간 ‘먹-’에 어미 ‘-다’가 결합한 단일어이다. 따라서 ⑦은 한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 ② ⑦의 ‘먹다’는 한 개의 어근이지만, ⑮의 ‘힘쓰다’는 ‘힘+쓰-+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두 개의 어근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⑦의 ‘먹다’와 ⑮의 ‘힘쓰다’의 어근의 개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③ ⑮은 합성어에 해당하므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만, ⑯은 파생어에 해당하므로 ‘접사+어근’이나 ‘어근+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 ⑯의 ‘헛기침’은 ‘접사+어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부하다’는 ‘어근+접사’로 이루어져 있다.

## 07 어근과 접사의 이해

‘달리기’는 동사 ‘달리다’의 어근 ‘달리-’와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접사 ‘-기’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08 어근과 접사의 이해

‘군소리’는 ‘소리’라는 어근에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인 ‘군-’이 결합하고 있지만, ‘군밤’은 ‘군(구운)’과 ‘밤’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한 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맨주먹’은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지닌 접사 ‘맨-’과 어근인 ‘먹’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② '날짐승'은 '날다'의 어근 '날-'에 어근 '짐승'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 ④ '돌다리'는 어근인 '돌'과 '다리'가, '집안'은 어근인 '집'과 '안'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돌다리'와 '집안' 모두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⑤ '감나무'는 어근인 '감'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그리고 '나무꾼'은 어근인 '나무'와 접사인 '-꾼'이 결합한 파생어에 해당하므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 헷갈려요!

#### '군밤'과 '군말'의 구분

'군밤'과 '군말'에서는 같은 형태인 '군-'을 사용하고 있지만, '군밤'은 합성어이고 '군말'은 파생어에 해당한다. '군밤'은 '굽-+ㄴ(관형사형 어미)+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어근이 2개이고, '군말'은 '군-(쓸데없는, 덧붙은)'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말'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어근이 1개이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군'을 '굽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판단하면 된다. 가령 '군밤, 군고구마'는 '굽다'의 의미를 지니지만, '군말, 군소리'는 '굽다'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 09 접사의 이해

'햇곡식, 햇과일, 햇밤, 햇보리'는 모두 접사인 '햇-'이 사용된 말로,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그 해에 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단일어와 복합어의 이해

'물고기'는 어근 '물'과 '고기'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심술쟁이'는 어근 '심술'에 접미사 '-쟁이'가 붙은 파생어이다. '아지랑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11 합성어의 이해

'뛰어갔다'는 '뛰어서 갔다'의 의미로 이해되므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피땀'은 '피'와 '땀'이 합해져 '노력'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②, ④ '논밭'은 '논'과 '밭', '오르내렸다'는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의 관계가 대등하다.
- ③ '봄비'는 앞의 단어가 뒤의 단어를 꾸며 주는 관계로 이루어져 '봄에 내리는 비'의 의미로 이해되므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 12 합성어의 이해

'손발'은 '손'과 '발'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①에서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어근 '손'과 '발'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물불'은 어근 '물'과 '불'이 결합하여 '어려움이나 위험'을 이르는 말로 쓰였으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③ '밤낮'은 어근 '밤'과 '낮'이 결합하여 '늘'을 이르는 말로 쓰였으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④ '쑥밭'은 어근 '쑥'과 '밭'이 결합하여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이르는 말로 쓰였으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⑤ '비늘방석'은 어근 '비늘'과 '방석'이 결합하여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이르는 말로 쓰였으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 13 합성어와 파생어의 이해

'물결레'는 '물+걸레'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울보'는 '울-+-보'로, ③ '햇나물'은 '햇-+나물'로, ④ '참기름'은 '참-+기름'으로, ⑤ '욕심꾸러기'는 '욕심-+꾸러기'로 각각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14 합성어와 파생어의 이해

'멋쟁이'는 '멋'이라는 어근과 '-쟁이'라는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몰래카메라'는 '몰래'와 '카메라'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그리고 '배나무'는 '배'와 '나무'라는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풋사랑'은 '풋-'이라는 접사와 '사랑'이라는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15 합성어와 파생어의 이해

'새빨간'과 '달렸다'는 파생어, '꽃잎'은 합성어이므로, ③이 ④와 ⑤를 모두 포함한다.

#### 오답 풀이

- ① '울음'은 '울-+-음'이 결합한 파생어에 해당한다. 합성어는 찾아볼 수 없다.
- ② '이슬비'는 어근 '이슬'과 '비'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파생어는 찾아볼 수 없다.
- ④ '군고구마'는 '굽-+-ㄴ+고구마'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파생어는 찾아볼 수 없다.
- ⑤ '안개꽃'은 어근 '안개'와 '꽃'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파생어는 찾아볼 수 없다.

### 16 합성어와 파생어의 이해

'강산'은 '강+산'으로, '오가다'는 '오(다)+가다'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산', '오가다'는 ①에 제시되어야 한다. '웃음'은 동사인 '웃다'의 어간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로 바뀌었고, '지우개'는 동사인 '지우다'의 어간 '지우-'에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로 바뀌었으므로 파생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웃음', '지우개'는 ②에 제시되어야 한다. '밀치다'는 파생어로 '밀-+-치(접미사)-+-다'로 분석할 수 있다.

개념04  
[품사]

## 체언

본문 57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4 01 (1) ○ (2) × (3) ○  
 04-1 02 (1) 추상 (2) 추상 (3) 구체 (4) 구체 (5) 추상  
     (6) 구체 03 (1) 백두산, 철수, 신사임당, 안중근,  
     한강 (2) 강, 토끼, 꽃, 동물, 사람 04 (1) 자립 명  
     사: 강아지 / 의존 명사: 마리 (2) 자립 명사: 철수 /  
     의존 명사: 것 (3) 자립 명사: 학교 / 의존 명사: 수  
 04-2 05 (1) 그 (2) 나, 그곳 (3) 이것, 저것 (4) 너희, 여  
     기 06 (1) 인칭 (2) 지시 (3) 지시 (4) 인칭 (5) 인  
     칭 (6) 인칭  
 04-3 07 (1) 일, 이, 삼 (2) 하나 (3) 제일, 제이 (4) 첫  
     째, 둘째, 셋째 08 (1) 하나, 넷, 다섯, 아홉, 열, 백  
     (百), 천(千) (2) 첫째, 제일(第一), 일곱째

본문 58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②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③ 16 ④ 17 ⑤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⑤

01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의미하는 ‘손’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생각, 사랑’과 달리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02 제시된 단어들을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분류하고 있다. 즉 구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지우개, 책상, 이순신’은 구체 명사이고, ‘정의, 희망, 이별’은 추상 명사이다.

03 ⑦은 보통 명사이고, ⑧은 고유 명사로, 보통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 중에는 추상 명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유 명사는 구체 명사에 해당하므로 추상 명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04 <보기>를 통해 의존 명사인 ‘마리, 개’는 앞에 수식하는 말인 ‘한’이 있어야 올바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를 통해 의존 명사는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인다는, 즉

앞에 수식하는 말이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05 ‘뿐’은 체언 뒤에 붙어 사용된 조사이다. 의존 명사는 앞에 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단어가 제시되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오답 풀이

- ① ‘곳’은 앞의 ‘가야 할’의 꾸밈을 받고 있고, 뒤에 조사가 붙었으므로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 ② ‘따름’은 앞의 ‘할’의 꾸밈을 받고 있고,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으므로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 ④ ‘체’는 앞의 ‘한’의 꾸밈을 받고 있고, 뒤에 조사가 붙었으므로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 ⑤ ‘명’은 앞의 ‘수천’의 꾸밈을 받고 있고, 뒤에 조사가 붙었으므로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의존 명사와 조사의 구별

‘만큼, 대로, 뿐’ 등의 단어는 문장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의존 명사와 조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존 명사는 앞에 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단어가 반드시 제시되고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체언에 붙는다는 점이 의존 명사와 다르다.

- 예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싶다 좋다 말이 없다.  
 → ‘뿐’이 ‘있을’의 꾸밈을 받고 있고,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에 해당함.
- 예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 앞의 체언인 ‘실력’ 뒤에 붙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사에 해당함.

06 ③의 ‘어느’는 ‘것’이라는 명사(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말로 대명사가 아니다. 대명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지 않으며 조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 오답 풀이

- ① ‘이것’, ‘저것’이라는 대명사가, ② ‘여기’라는 대명사가, ④ ‘그대’, ‘나’라는 대명사가, ⑤ ‘무엇’이라는 대명사가 각각 사용되었다.

07 <보기>에서는 지시 대명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곳’은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 오답 풀이

- ①의 ‘열’은 수사, ②의 ‘곳’은 명사(의존 명사), ④의 ‘나’는 인칭 대명사, ⑤의 ‘이별’은 명사(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08 [장면 1]에서 신데렐라가 말한 ‘여기’는 신데렐라가 ‘나가야’ 하는 공간인 ‘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장면 2]에서 신데렐라가 말한 ‘여기’는 신데렐라가 현재 있는 공간인 ‘집’을 가리킨다. 따라서 [장면 1]의 ‘여기’와 [장면 2]의 ‘여기’는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가리킨다.

## 오답 풀이

- ①~④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인 ‘여기, 너, 저거, 이거, 나’는 대명사로, ‘너, 나’는 사람인 신데렐라를 가리키고, ‘저거, 이거’는 사물인 구두

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는 장소인 성과 신데렐라의 집을 각각 가리킨다.

09 ‘그이’는 인칭 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시 대명사이다.

10 ‘여기’는 지시 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칭 대명사이다.

11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세 사람’에서 ‘세’는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세 사람’에서 ‘세’는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인 관형사이다.

12 ‘하나’는 사과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의 ‘저곳’은 대명사(지시 대명사), ②의 ‘자전거’는 명사(구체 명사), ③의 ‘한’은 관형사, ⑤의 ‘둘째’는 서수사에 해당한다.

13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서수사에 해당한다.

14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두’는 ‘척’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말로 수사가 아니다. 수사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② ‘한’은 ‘줄’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말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④ ‘백’은 ‘점’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말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⑤ ‘첫째’는 ‘주’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 주는 말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15 ⑦과 같은 수사는 조사가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다.  
② ⑦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고, ⑧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④ 수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⑤ 수사는 체언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16 ‘셋째’는 ‘팔’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로 수사가 아니라 수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일곱’, ② ‘하나’, ③ ‘하나’, ‘둘’, ⑤ ‘첫째’가 수사이다.

#### 헷갈려요!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별

수사와 수 관형사는 순서나 차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수사는 체언에 해당하고 수 관형사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수사는 체언이므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수 관형사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또한 수 관형사는 수식언에 해당하므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따라서 수사와 수 관형사를 구분할 때는 문장에서 사용할 때 뒤에 조사가 사용되었는지, 뒤의 명사를 꾸며 주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17 ‘다섯 명’에서 ‘다섯’은 뒤에 오는 체언인 ‘명’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체언이 아니라 수식언, 즉 관형사에 해당한다.

18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것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이다.

19 ‘나’는 대명사, ‘과자, 누나, 사탕’은 명사, ‘하나’는 수사로, 모두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체언이다.

#### 오답 풀이

- ②는 독립언, ③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 ④는 용언, ⑥는 관계언에 대한 설명이다.

20 ‘옛날, 나그네, 산길, 황금, 욕심’은 명사이고, ‘그곳, 그, 그것’은 대명사이다. 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 나그네’에 쓰인 ‘한’은 수사가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21 ‘골목’, ‘가게’는 명사이고, ‘하나’는 수사이며, ‘거기’는 대명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 당신–대명사, ② 그, 나–대명사 / 사람–명사, ④ 여러분, 누구–대명사 / 가운데, 일–명사, ⑤ 형, 필통, 연필, 동생–명사 / 하나–수사

22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지만, ⑤와 같이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체언은 ‘착한’이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이/가’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가 될 수 있다.  
② 체언은 ‘이다’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수 있다.  
③ 체언은 ‘을/를’이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가 될 수 있다.  
④ 체언은 ‘되다/아니다’ 앞에서 ‘이/가’라는 조사와 결합하여 보어가 될 수 있다.

## 개념 05

[품사]

## 용언

본문 63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      |   |
|------|---|
| 05   | 01 (1) 가변어 (2) 주체 (3) 부사, 서술어 (4) 어간, 어미  |
| 05-1 | 02 날다, 달리다, 만들다, 먹다 03 (1) 자동 (2) 타동 (3) 자동 (4) 타동 (5) 타동 (6) 자동 04 (1) 앓다 (2) 부르다 (3) 웃다 (4) 흐르다 (5) 차다 (6) 읽다 |
| 05-2 | 05 (1) 작다 (2) 넓었다 (3) 행복하면, 좋다 (4) 즐거운 (5) 파란, 높게 06 (1) 크다 (2) 파랗다 (3) 따뜻하다 (4) 귀엽다 (5) 기쁘다 (6) 훌륭하다           |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③ 02 ②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⑤ 11 ③ 12 ② 13 ② 14 ①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③ 21 ④  
 22 ②

**01** ③에 쓰인 ‘따뜻해서’와 ‘많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친절하게’는 형용사이고, ‘대한다’는 동사이다.
- ② ‘신은’은 동사이고 ‘멋지다’는 형용사이다.
- ④ ‘노란’은 형용사이고, ‘안은’은 동사이다.
- ⑤ ‘단정히’는 ‘입니다’를 꾸며 주는 단어로 부사에 해당하고 ‘입니다’는 동사이다.

**02**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잡고’ 앞에 목적어 ‘고기를’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잡고’는 타동사라 할 수 있다.

**03** 〈보기〉는 동사에 관한 설명이다. ‘넘어질’은 ‘넘어지다’가 활용한 형태로 동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빨리”는 ‘달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에 해당한다.
- ③ ‘무슨’은 ‘과목’을 꾸며 주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 ④, ⑥ ‘아름다운가’와 ‘좋은’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04** 〈보기〉에서 타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작이 목적어인 ‘쓰레기’에 미치고 있는 ‘건졌다’가 타동사로 알맞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 자동사는 움직임이나 과정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이므로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자동사에 해당한다.

**05** 〈보기〉에서 ⑦의 동사는 목적어가 사용되었으므로 타동사, ⑨의 동사는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사이다. 그런데 ‘서다’는 주체의 동작만 드러낼 수 있을 뿐이고 목적어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자동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⑦의 ‘먹다, 먹었다’ 모두 어근은 ‘먹–’이고, ⑨의 ‘가다, 갔다 (가–+–았–+–다)’ 모두 어근은 ‘가–’이므로, 동사의 어근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⑦의 ‘먹다’는 주체인 ‘그’가 밥을 먹는 동작을, ⑨의 ‘가다’는 주체인 ‘그’가 학교나 직장에 가는 동작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⑤ ⑨의 동사 ‘먹다, 먹었다’는 동작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인 ‘밥을’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⑨의 동사는 ‘밥을’을 통해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⑦의 ‘가다, 갔다’는 동작이 주어에만 미치고 있으므로 자동사에 해당한다.

**06** ‘그러하다’는 지시 형용사이고, ‘착실하다, 행복하다’는 성상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 ② ‘곱다’와 ‘기쁘다’는 형용사이고, ‘마시다’는 동사이다.
- ③ ‘어떤’과 ‘모든’은 관형사이고, ‘매우’는 부사이다.
- ④ ‘여리다’와 ‘깊다’는 형용사이고, ‘적시다’는 동사이다.

**07** 〈보기〉를 통해 형용사인 ‘작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작는다’, 명령이나 권유를 표현하는 ‘작아라, 작자’가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하므로, ‘작다’가 ‘작고, 작아, 작으니’로 형태가 변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특정 형태로 바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헷갈려요!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문장에서 사용된 용언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혼갈릴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 내용을 적용해 보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알 수 있다.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인 ‘–ㄴ–/–는–’, 명령형 어미 ‘–아리/–어리’, 청유형 어미 ‘–자’와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이러한 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08** ‘이러한’은 말하는 이의 주관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지시 형용사에 해당한다.

**09** 제시된 단어들은 형용사로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한다. ⑤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10** ⑤는 동사이고 나머지는 형용사이다.

**11** ③과 같은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12** ‘읽는다, 먹자, 바쁘시다’는 문장에서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용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장 안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은 독립언에 대한 설명이고, ③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고, ⑥는 관계언에 대한 설명이다.

**13** ‘새’는 체언인 ‘신발’을 꾸며 주고 있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만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언이 아니라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늙은’은 형용사 ‘늙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 ③ ‘맛있게’는 형용사 ‘맛있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 ④ ‘맑은’은 형용사 ‘맑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 ⑤ ‘하얗게’는 형용사 ‘하얗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것이므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14 ‘태어나서’의 기본형은 ‘태어나다’로 동사이며, ‘기뻤다’의 기본형은 ‘기쁘다’로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나눠’, ‘먹었다’는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 ③ ‘어둡고’, ‘침침했다’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 ④ ‘밝아서’, ‘환하다’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참고로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의미로 쓰이면 동사에 해당한다.
- ⑤ ‘잡으려’, ‘갔다’ 모두 동사에 해당한다.

15 ④의 ‘그림’은 모두 명사로 쓰였으므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내가 보았던 그림을 똑같이 그림 그림이다.’에서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생략된 형태이다.

### 오답 풀이

- ①~③ ‘잠을’(‘춤을’, ‘꿈을’)은 ‘잠’(‘춤’, ‘꿈’)이라는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고, 끝에 나오는 ‘잠’(‘춤’, ‘꿈’)은 ‘자다’(‘춥다’, ‘꾸다’)에 명사형 어미인 ‘-ㅁ’이 붙어 활용한 형태로 동사이다.
- ⑤ ‘슬픔이’는 ‘슬픔’이라는 명사에 ‘이’라는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고, 끝에 나오는 ‘슬픔’은 ‘슬프다’에 명사형 어미인 ‘-ㅁ’이 붙어서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16 ③에서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의 의미로 쓰인 ‘달다’는 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꼴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의 의미의 ‘달다’는 형용사이다.
- ② ‘듣는 이가 말하는 이에게 어떤 것을 가지게 하거나 누리게 하다.’는 의미의 ‘달다’는 동사이다.
- ④ ‘저울로 무게를 헤아리다.’는 의미의 ‘달다’는 동사이다.
- ⑤ ‘흡족하여 기분이 좋다.’는 의미의 ‘달다’는 형용사이다.

17 〈보기〉의 ‘늙은’은 동사이다. ④의 ‘여기는’도 동사이고 나머지는 형용사이다.

18 ⑦, ⑨, ⑩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 등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⑧, ⑪, ⑫은 사물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9 ‘빨간’, ‘사서’, ‘귀여운’, ‘선물했다’는 각각 ‘빨갛다’, ‘사다’, ‘귀엽다’, ‘선물하다’가 활용한 형태로 용언에 해당한다. ‘빨간’과 ‘귀여운’은 형용사이고, ‘사서’와 ‘선물했다’는 동사이다.

20 ‘저린’은 ‘일’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활용하지 않는 말이다. 용언과 관형사는 모두 문장에서 꾸며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관형사는 용언과는 달리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춥다’는 형용사이다.
- ② ‘읽고’는 ‘읽다’가 활용한 형태로 동사이다.
- ④ ‘많은’은 ‘많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 ⑤ ‘이러한’은 ‘이러하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21 ‘심각한’은 ‘심각하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22 ‘어떤’은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활용하지 않는 품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되니’는 ‘되다’가 활용한 형태로 동사이다.
- ③ ‘주린’은 ‘주리다’가 활용한 형태로 동사이다.
- ④ ‘도전해’는 ‘도전하다’가 활용한 형태로 동사이다.
- ⑤ ‘무덤던’은 ‘무덤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 개념 06 [품사]

### 수식언

본문 69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      |  |
|------|--|
| 06   | 01 (1) ○ (2) ○ (3) ×   |
| 06-1 | 02 (1) 성상 (2) 지시 (3) 성상 (4) 수 (5) 지시<br>(6) 수 03 (1) 관형사, 형용사 (2) 수사, 관형사 (3)<br>관형사, 형용사 (4) 관형사, 관형사                               |
| 06-2 | 04 (1) ○ (2) ○ (3) × (4) × 05 (1) 매우, 빨리<br>(2) 언제 (3) 아직, 안 (4) 그러나 (5) 과연 (6) 잘<br>06 (1) 문장 (2) 성분 (3) 문장 (4) 성분 (5) 성분<br>(6) 문장 |

본문 70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③ | 02 ③ | 03 ⑤ | 04 ④ | 05 ③ | 06 ① | 07 ⑤ |
| 08 ④ | 09 ⑤ | 10 ④ | 11 ⑤ | 12 ③ | 13 ④ | 14 ④ |
| 15 ② | 16 ① | 17 ③ | 18 ① | 19 ⑤ | 20 ① | 21 ② |

**01** <보기>는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의 ‘어느’는 ‘가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늘’은 ‘웃는’이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② ‘물론’은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④ ‘푸른’은 ‘바다’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가 아니고 형용사이다. ‘푸르다’라는 형용사가 활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 ⑤ ‘이곳’은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02** 밑줄 친 ‘현’과 ‘아무’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준다.

**03** ‘이런’은 지시 관형사이므로, 이를 ‘수 관형사’로 바꾸게 되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뿐더러 문장의 의미도 어색해진다.

#### 오답 풀이

- ① ‘그’는 뒤에 오는 체언인 ‘사람’을, ‘이런’은 뒤에 오는 체언인 ‘유형’을 꾸며 주고 있다.
- ② ‘그’와 ‘이런’은 지시 관형사에 해당하므로, 둘 모두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③ ‘그를 보거라.’에서 ‘그’는 뒤에 조사가 붙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명사에 해당한다.
- ④ ‘그’와 ‘사람은’의 순서를 바꾸면 ‘사람은 그’가 되어 문장이 어색해 진다.

#### 헷갈려요!

#### 관형사와 부사의 위치 이동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므로 체언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해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부사는 문장 안에서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04** 수 관형사와 수사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05** ①은 뒤에 오는 체언인 ‘명’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에 해당하고, ②은 뒤에 조사 ‘만’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06** <보기>는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활짝’은 동사인 ‘웃었다’를 꾸며 주고 있다.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 품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강한’은 ‘햇볕’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이지만 ‘강하다’가 활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 ③ ‘쉽게’는 ‘찾았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이지만 ‘쉽다’가 활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 ④ ‘새’는 ‘학기’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⑤ ‘식혀’는 ‘식히다’가 활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이다.

**07** ⑤에는 대명사(여기), 조사(에, 를), 관형사(온갖), 명사(쓰레기), 동사(모아, 놓았구나)가 나타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정말’, ② ‘아직’, ③ ‘설마’, ④ ‘똑똑’이 부사에 해당한다. ‘조심스럽게’는 ‘조심스럽다’가 활용한 형용사이다.

**08** 부사는 기본적으로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편으로, 성상 부사인 ⑦의 ‘천천히’는 ‘가차가’ 앞에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 부사인 ⑧의 ‘안’은 뒤에 오는 용언에 부정의 뜻을 드러내 주므로, 문장에서의 위치 이동이 성분 부사보다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09** ⑤의 ‘다행히’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므로, 문장 부사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 양태 부사의 이해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에는 양태 부사가 있다. 양태 부사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아무쪼록’, ‘하물며’ 등이 있다.

**10** ‘제발’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문장 부사이다.

**11** ‘새’와 ‘이런’은 관형사, ‘매우’는 부사이다. 따라서 관형사인 ‘새’와 ‘이런’은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만, 부사인 ‘매우’는 체언을 꾸며 주지 않고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12** ①에서 ‘새’는 뒤에 오는 체언인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①에서는 체언인 ‘옷’이나 용언인 ‘입는다’를 수식하는 관형사나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②에서는 관형사 ‘새’, ③에서는 부사 ‘천천히’가 사용되었다.
- ④ ④의 ‘천천히’는 품사가 부사이므로, 부사인 ‘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 ⑤ ⑤, ⑥에서는 수식언이 사용되었으므로, 수식언이 사용되지 않은 ⑦의 문장보다 문장의 뜻이 좀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13** <보기>는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므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④에서 ‘붉은’은 체언 ‘석류’를 꾸며 주고 있지만, 품사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그(관형사), 바로(부사), ② 어떤(관형사), ③ 모든(관형사), 일제히(부사), ⑤ 옛(부사)

**14** ‘어떤’은 뒤에 오는 체언인 ‘사람’을 꾸며 주고 있고, 이리는 뒤에 오는 용언인 ‘지나갔어’를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⑥가 아니라 ②가 ‘어떤 무엇’의 ‘어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⑥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의 ‘어떻게’에 해당한다.

15 ‘판’은 뒤에 오는 명사 ‘이야기’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나머지는 뒤에 오는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6 ‘아무’는 뒤에 오는 체언인 ‘연필’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②, ③, ⑤ ‘가장’, ‘아장아장’, ‘빨리’는 뒤에 오는 용언인 ‘좋아하다’, ‘걸 어가고 있다’, ‘도착한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과연’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7 ③에는 부사 ‘멀리’만 사용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모든(관형사), 아주(부사), ② 다른(관형사), 다시(부사), ④ 옛(관형사), 정말(부사), ⑤ 온갖(관형사), 잘(부사)

18 <보기>는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다. ①에는 ‘그(관형사)’, ‘가장(부사)’, ‘빨리(부사)’의 3개 수식언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② ‘무척’이라는 부사 1개만 사용되었다. ‘좋은’은 ‘좋다’가 활용한 형용사이다.  
③ ‘새(관형사)’, ‘매우(부사)’의 2개가 사용되었다.  
④ ‘매우’, ‘힘껏’의 2개 부사가 사용되었다. ‘노란’은 ‘노랗다’가 활용한 형용사이다.  
⑤ ‘모든(관형사)’, ‘갑자기(부사)’의 2개가 사용되었다. ‘큰’은 ‘크다’가 활용한 형용사이다.

19 ‘어떤’은 관형사이고, ‘별씨’와 ‘많이’는 부사이다. 관형사, 부사는 수식언으로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부사, ② 관형사, ③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④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다.

20 ‘이’는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너무’는 ‘어렵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② ‘과연’이라는 부사가 쓰였다. ‘훌륭한’은 ‘훌륭하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③ ‘첫’이라는 관형사가 쓰였다.  
④ ‘설마’는 부사이고, ‘의심하는’은 ‘의심하다’라는 동사가 활용한 형태이다.  
⑤ ‘모름지기’와 ‘열심히’는 모두 부사이다.

21 ‘흔’은 관형사이고, ‘깨끗이’와 ‘바짝’은 부사이다. ‘이번’은 명사이고, ‘말릴’은 ‘말리다’에서 활용한 형태로 동사이다.

## 개념 07 [품사]

### 관계언, 독립언

본문 75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      |  |
|------|--|
| 07   | 01 (1) ○ (2) ○ (3) ○ (4) ×   |
| 07-1 | 02 (1) 격 (2) 보조 (3) 격 (4) 보조 (5) 격 (6) 접속<br>03 (1) 역시 (2) 대조 (3) 단독 (4) 시작 (5) 선택                 |
| 07-2 | 04 (1) × (2) ○ (3) ○ (4) ○ 05 (1) ○ (2) ×<br>(3) ○ (4) ○ (5) × 06 (1) B (2) B (3) A (4) A<br>(5) A |

본문 76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② | 04 ④ | 05 ④ | 06 ④ | 07 ② |
| 08 ③ | 09 ⑤ | 10 ③ | 11 ④ | 12 ① | 13 ④ | 14 ① |
| 15 ⑤ | 16 ⑤ | 17 ③ | 18 ④ | 19 ② | 20 ② | 21 ② |
| 22 ④ |      |      |      |      |      |      |

01 ④에는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 을, ② 와, 는, 이다, ③ 깨서, ⑤ 마저

02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격 조사로, 격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하여,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한다.

03 <보기>에서는 서술격 조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 하나로, 다른 조사와 달리 ‘이고’, ‘이며’, ‘이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04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에서 ‘가’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 즉 문법적 관계만을 드러내는 격 조사(주격 조사)이다. 이와 달리 ‘만, 마저, 도, 는’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보조사가 쓰인 문장 성분 파악

문장에서 보조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문맥상 원래 쓰여야 할 격 조사로 대체하여 문장 성분을 파악해야 한다. 가령 ‘철수도 빵만 먹는다.’의 경우, 보조사 ‘도’와 ‘만’ 자리에 주격 조사인 ‘가’와 목적격 조사인 ‘을’을 넣어서 문장 성분을 파악해야 한다. 그럴 경우 ‘철수도’는 주어, ‘빵만’은 목적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까지’는 보조사로, ‘마침’이라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주격 조사로, ② ‘을’은 목적격 조사로, ③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⑤ ‘으로’는 부사격 조사로 각각 사용되었다.

**06** ‘에’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07** <보기>에서는 접속 조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②의 ‘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8**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보조사 ‘부터’가, ② 관형격 조사 ‘의’와 보조사 ‘은, 뿐’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④ 목적격 조사 ‘를’과 보조사 ‘은, 밖에’가, ⑤ 주격 조사 ‘이’와 부사격 조사 ‘에’가 각각 사용되었다.

**09** <보기>의 ‘는, 를, 이, 에’는 모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이러한 조사들을 생략하게 되면 조사가 붙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문장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

**10** ③에는 ‘보다, 의, 가’의 3개의 관계언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는, 을-2개, ② 에서, 까지-2개, ④ 가-1개, ⑤ 이, 가-2개

**11** ④의 ‘달리는’은 동사인 ‘달리다’의 ‘달리-’에 어미인 ‘-는’이 결합하여 ‘차’를 꾸며 주고 있다. 조사는 다른 단어를 꾸며 주지 못한다.

**12**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랐을 때 내는 감탄사이다. 따라서 ‘어머’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말이라 할 수 없다.

**13** ‘아이고’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로,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나머지는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14** ‘여보게’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고, 나머지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15** 독립언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문장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16** ‘정수야’에서 ‘정수’는 명사에 해당하고, ‘야’는 명사에 붙은

조사에 해당하므로 감탄사라 할 수 없다. ‘야’는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독립언과 문장 성분 독립어의 구분

문장에서 독립언인 감탄사와 독립어의 역할은 유사하다. 문장 성분인 독립어 안에 독립언인 감탄사가 포함되지만, 모든 독립어가 독립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체언 단독으로도 독립어가 될 수 있고, 호격 조사가 붙어 독립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언은 품사로서는 감탄사이지만 독립어는 품사가 감탄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

**17** ‘글쎄’는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18**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관계언이다. 체언은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19** ‘저’는 관형사이고, ‘제일’은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그런데 ‘큰’은 ‘소리’를 꾸며 주는 말이기는 하지만 ‘크다’가 활용한 형태로 형용사이다. 따라서 ‘큰’은 용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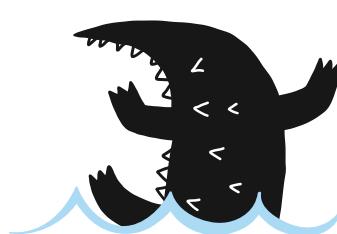
#### 오답 풀이

①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독립언에 해당한다.  
③ ‘에서, 은, 로, 가’는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④ ‘말했다’는 동사이고, ‘아름답구나’는 형용사로 용언에 해당한다.  
⑤ ‘산, 정상, 소리, 봉우리’는 명사이고, ‘둘’은 수사로 체언에 해당한다.

**20** ‘달리다, 작다, 놀다, 흐르다, 하얗다, 낫다, 예쁘다, 잡다, 업다, 등글다’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며, ‘사과, 몹시, 현, 글쎄, 저것, 잠자리, 의자, 나무, 항상, 아버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한다.

**21**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는 동사이다. ‘노랗다, 달다, 아름답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2** ④ 뒤에 의존 명사인 ‘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에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가 들어가야 한다. 수사는 체언이므로 다른 말을 꾸며 주지는 못한다.



### 3 단계 | 실력 완성하기

01 ③ 02 ③ 03 모두 체언으로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③ 09 ④ 10 ③ 11 ① 조사는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부사 두에도 결합하여 쓰인다. ② 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12 ⑤ 13 ① 14 ⑦과 ⑧은 문장 안의 다른 성 분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⑨은 명사와 조사로 이루어진 반면 ⑩은 감탄사이다. 15 ① 16 ③ 17 ② 18 ②

#### 01 품사의 이해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강’, ‘깊이’, ‘누구’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고,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르다’는 동사, ‘강, 깊이’는 명사, ‘누구’는 대명사,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 02 품사의 이해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매우, 살며시, 이리, 아니’는 용언을 꾸며 주어 그 뜻을 분명하게 해 주는 부사에 해당한다.

#### 03 체언의 이해

‘꽃’은 명사, ‘나’는 대명사, ‘넷’은 수사로, 모두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꽃, 나, 넷’은 모두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 04 대명사의 이해

⑥은 말하는 이인 지수와 듣는 이인 성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지수가 자신이 낀 장갑이 어떠하냐고 묻고 있고, 이에 대해 성모가 대답하고 있으므로, ⑥은 지수가 끼고 있는 ‘장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② ‘여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현재 성모와 지수가 대화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④ ‘거기’는 지수가 장갑을 산 곳을 설명하기 위해 가리키는 장소인 ‘편의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⑥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⑤ ‘그곳’은 지수가 성모에게 설명한 장갑을 산 장소에 해당하므로, 지

수의 두 번째 말을 통해 지수의 언니가 장갑을 산 ‘가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05 수사의 이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수사로 ⑤의 ‘열’이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매우’는 부사, ② ‘자동차’는 명사, ③ ‘누구’는 대명사, ④ ‘세’는 뒤에 오는 체언인 ‘송이’를 꾸며 주므로 관형사에 각각 해당한다.

#### 06 용언의 이해

‘간다’의 기본형은 ‘가다’이고, ‘싫다’의 기본형은 ‘싫다’이므로, ‘가다, 싫다’를 전자 국어사전에 입력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간다’를 전자 국어사전에 입력하면 의미를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⑦의 ‘간다’는 동사, ⑨의 ‘가는’은 동사, ‘싫다’는 형용사, ⑩의 ‘걷는’은 동사, ‘좋습니다’는 형용사로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 헷갈려요!

##### 형용사와 관형어, 부사어의 차이 구분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지만,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서 체언이나 서술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관형어나 부사어는 관형사, 부사 그 자체인 경우도 있지만,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나 부사형 어미가 붙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품사는 형용사나 동사에 해당한다.

#### 07 용언의 이해

‘밝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쓸 수 있다. 그런데 ⑪에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이때 ‘밝다’는 동사이다. ⑫의 ‘밝는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뜻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환해진다는 ‘작용(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라 하였으므로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던졌다’는 동사라 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가 붙는다고 하였다. ⑫의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동사라 할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동사 어간에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가 붙는다 하였다. ⑬의 ‘입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한 동사라 할 수 있다.
- ⑥ <보기>에서 형용사 어간에는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다 하였다. ⑭의 ‘건강하자’는 기본형 ‘건강하다’에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라 할 수 있다.

## 08 관형사의 이해

〈보기〉의 ㉠은 뒤에 오는 체언인 ‘난쟁이’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③의 ‘셋’은 뒤에 조사 ‘을’이 붙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수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다섯’은 뒤에 오는 체언인 ‘살’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② ‘한’은 뒤에 오는 체언인 ‘그루’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④ ‘첫’은 뒤에 오는 체언인 ‘번’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⑤ ‘세’는 뒤에 오는 체언인 ‘마리’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모두 관형사이다.

## 09 부사의 이해

‘아주’는 뒤에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ㄱ에서 ‘매우’는 부사인 ‘빨리’를 수식하고 있다.
- ② ㄴ에서 ‘설마’는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다.
- ③ ㄷ에서 ‘바로’는 이어지는 명사인 ‘옆’을 수식하고 있다.
- ⑤ ㅁ에서 ‘과연’은 문장 부사로,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말’은 성분 부사로, 이어지는 용언인 ‘뛰어나군’을 수식하고 있다.

## 10 조사의 이해

〈보기〉에 따르면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하지만 ③의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에서 ‘와’는 ‘개’와 ‘고양이’가 같은 자격으로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도록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와’는 보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새소리만’의 ‘만’은 ‘단독’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② ‘한 달도’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④ ‘할아버지부터’의 ‘부터’는 ‘시작’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⑤ ‘가족밖에’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11 조사의 이해

‘ㄱ’은 체언 뒤에 조사가 쓰인 예이고, ‘ㄴ’은 ‘예쁘게’라는 용언 뒤에 쓰인 예이며, ㄷ은 부사 뒤에 쓰인 예이다. ‘도’라는 조사는 보조사로, 앞말에 ‘역시’라는 특별한 뜻을 더해 주고 있다.

## 12 감탄사의 이해

‘가을’은 체언 단독으로 쓰인 독립어일 뿐, 감탄사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에헴’은 짐짓 점잔을 빼거나 인기척을 내려고 일부러 내는 큰기침 소리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감탄사이다.
- ② ‘어머’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깜짝 놀랐을 때 내는 느낌의 감탄사이다.
- ③ ‘네’는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 ④ ‘여보’는 어른이, 가까이 있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 13 품사의 이해

㉠은 동사, ㉡은 부사, ㉢은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①에서 ‘아차’는 감탄사, ‘깜빡’은 부사, ‘잊었네’는 동사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 ‘벌써’는 부사, ‘익었어요’는 동사에 해당한다.
- ③ ‘늘’은 부사, ‘물려받는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 ④ ‘아하’는 감탄사, ‘피었네’는 동사에 해당한다.
- ⑤ ‘반드시’는 부사, ‘보살펴 주소서’는 동사에 해당한다.

## 14 감탄사의 이해

⑦과 ⑧은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 명사 ‘철수’와 호격 조사 ‘야’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은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에 해당한다.

## 15 품사의 이해

㉠은 부사, ㉡은 대명사, ㉢은 관형사, ㉣은 관형사로, 모두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은 부사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이다.

## 16 품사의 이해

‘여기’와 ‘너희’는 대명사로 같은 품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그: 대명사, 저: 관형사, ② 알아서: 형용사, 읽었다: 동사, ④ 첫째: 수사, 두: 관형사, ⑤ 매우: 부사, 모든: 관형사

## 17 품사의 이해

그의 ‘아름다운’은 ‘꽃이 아름답다.’처럼 주어인 ‘꽃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ㅁ의 ‘빠른’은 ‘일처리가 빠르다.’처럼 주어인 ‘일처리기’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 하지만 ㄴ의 ‘웬’과 ㄷ의 ‘새’, ㄹ의 ‘모든’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관형사이다.

## 18 품사의 이해

ⓐ ‘이’는 명사 ‘사과’를, ⓑ ‘그’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이리’는 동사 ‘오게’를, ⓕ ‘그리’는 동사 ‘보내겠습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개념08 [어휘 체계와 양상]

### 어휘 체계와 양상

본문 85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8-1 01 (1) ⑦ (2) ② (3) ⑤ (4) ④ 02 (1) 한자 (2) 고유 (3) 외래 (4) 고유 (5) 한자 (6) 고유 (7) 외래 (8) 외래 (9) 고유 10 한자 (11) 고유 12 외래 03 (1) ⑤ (2) ② (3) ③ ④ ⑦
- 08-2 04 (1) 은어 (2) 지역 방언 (3) 전문어 (4) 사회 방언 05 (1) 지역 (2) 사회 (3) 지역 (4) 사회 06 (1) 전문 (2) 전문 (3) 은어

본문 86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② 10 ⑤

01 외래어는 본디 우리에게 없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경우이므로,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꿔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02 어휘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는데, <보기>에서 ‘거울, 주머니’는 고유어, ‘시계(時計), 안경(眼鏡)’은 한자어, ‘라디오, 볼펜’은 외래어에 해당한다.

03 <보기>에 제시된 어휘들은 고유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유어는 본디부터 있었던 우리말로,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정서, 전통 등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①은 한자어, ②는 지역 방언, ④는 다의어, ⑥는 외래어에 대한 설명이다.

04 <보기>에서는 고유어 ‘느낌’에 대해 한자어인 ‘감상(感想), 예감(豫感), 감정(感情)’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분명하고 정확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외래어는 본디 우리에게 없던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쉽게 바꾸어 쓸 수 없는 어휘들이 많다.

06 은어는 어떤 특정한 집단 안에서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심마니들이 쓰는 ‘산개(호랑이)’가 이

에 해당한다. 판사가 쓰는 말인 ‘재정 중인’은 전문어와 관련된 사례이다.

07 <보기>는 지역 방언이 사용된 사례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러한 지역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지역 방언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③ 특정 전문 직업에서 나타나는 어휘는 사회 방언인 전문어에 해당한다.  
④ <보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경우는 세대 차이에 따른 언어의 양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지역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 방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08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전문어에 해당한다. 전문어는 뜻이 정밀하고 다의성이 적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지만, 대부분 그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헷갈려요!

#####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

외래어는 우리말 어휘에 포함되어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는 말로, 우리말로 쉽게 바꾸기 어렵다. 반면에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로, 외국어에 대응하는 우리말(한자어 포함)이 있어서 우리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09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은어로, 은어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남모르게 자기네끼리만 의미가 통할 수 있게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은어는 집단 내 비밀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10 ‘정구지’는 ‘부추’를 뜻하는 지역 방언이다. 나머지는 사회 방언에 해당된다. 사회 방언은 나이, 성별, 직업, 계층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가리킨다. 사회 방언으로 전문어, 은어, 세대별 언어 등을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세젤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을 뜻하는 사회 방언이다.  
② ‘생파’는 ‘생일 파티’를 뜻하는 사회 방언이다.  
③ ‘슛’은 ‘촬영’을 뜻하는 사회 방언이다.  
④ ‘문상’은 ‘문화 상품권’을 뜻하는 사회 방언이다.

## 개념09 [어휘의 의미 관계]

###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본문 89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9-1 01 (1) ○ (2) ○ (3) ✗ (4) ○ (5) ✗ (6) ✗ (7)  
 ○ (8) ✗ 02 (1) 더하다 (2) 따뜻하다 (3) 배우다  
 (4) 가다 03 (1) ① 심성 ② 의지 ③ 관심 (2) ①  
 수리하다 ② 치료하다 ③ 수정하다
- 09-2 04 (1) ○ (2) ○ (3) ✗ (4) ○ (5) ✗ (6) ✗ (7)  
 ○ (8) ✗ 05 (1) 빼다 (2) 벗다 (3) 열다 (4) 오르다  
 (5) 맞다 06 (1) ① 앓다 ② 무디다 ③ 작동하다  
 (2) ① 비다 ② 낫다 ③ 온화하다

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이에 따라 유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나 우리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05 ④은 문맥상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므로 ‘의지’로 바꾸어야 한다.

06 <보기>에서는 반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④의 ‘엄마—어머니’는 유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보기>를 뒷받침할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07 ①, ⑤는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상하 관계, ③, ④는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08 <보기>의 ‘여는’은 기본형이 ‘열다’로 ‘어떤 회의나 모임을 시작하다.’를 뜻한다. 따라서 반의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를 뜻하는 ‘마치다’이다.

#### 오답 풀이

- ① ‘덮다’는 ‘그릇 같은 것의 아가리를 뚜껑 따위로 막다.’의 의미이다.  
 ③ ‘닫다’는 ‘열린 문짝, 뚜껑, 서랍 따위를 도로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의 의미이다.  
 ④ ‘잠그다’는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하다.’의 의미이다.  
 ⑤ ‘다물다’는 ‘입술이나 그처럼 두 쪽으로 마주 보는 물건을 꼭 맞대다.’의 의미이다.

#### 헷갈려요! 우리말의 반의 관계의 파악

유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반의 관계 역시 우리말이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말 ‘열다’가 문맥에 따라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은, ‘덮다, 마치다, 닫다, 잠그다, 다물다’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의 관계를 파악 할 때도 유의 관계처럼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이에 따라 반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나 우리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09 ①은 ‘짧다’와 ‘길다’가, ②는 ‘가다’와 ‘오다’가, ③은 ‘없다’와 ‘있다’가, ④는 ‘슬픔’과 ‘기쁨’, ‘줄다’와 ‘늘다’가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10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가 보통 정도를 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작다’가 반의어로 적절하다.

11 ‘누명을 벗다.’에서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의미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라는 의미의 ‘쓰다’가 될 수 있다. ‘배낭을 벗다.’에서 ‘벗다’는 ‘메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라는 뜻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 어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라는 뜻의 ‘메다’가 될 수 있다.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⑤ 10 ④ 11 ①

01 ②의 ‘오르다—내리다’는 반의 관계에 있다. 나머지는 유의 관계에 해당된다.

02 ⑤의 ‘날’은 ‘기상 상태, 날씨’를 의미하고, ‘요일’은 일주일의 하루라는 의미이므로 의미상 유사성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재빠르다’는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르다.’의 의미이고, ‘날쌔다’는 ‘동작이 날래고 재빠르다.’의 의미이다.  
 ② ‘진자’는 ‘밥’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③ ‘사다’는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의 의미이고, ‘구입하다’는 ‘물건 따위를 사들이다.’의 의미이다.  
 ④ ‘스승님’은 ‘선생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03 ② ‘문학—예술’의 관계는 의미상 문학이 예술 쪽에 포함되는 상하 관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04 ⑤ ‘살다 간’의 ‘간’은 ‘죽은’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나친’과 유의어로 볼 수 없다.

#### 헷갈려요! 우리말의 유의 관계의 파악

우리말은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문맥이 어떠하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가령 이 문제에서도 ‘가다’가 모두 사용되었지만, 문맥에 따라 ‘이동하다, 흐르다, 참석하다, 변하다, 죽다’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유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문맥의 의

### 오답 풀이

⑤ '허물을 벗다.'에서 '벗다'는 '동물이 껍질, 허물, 털 따위를 갈다.'의 의미이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는 '쓰다'가 될 수 없다.

## 개념10 [어휘의 의미 관계]

### 상하 관계, 다의 관계, 동음이의 관계

본문 93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10-1 01 (1) ⊂ (2) ⊂ (3) ⊂ (4) ⊂ (5) ⊂ (6) ⊂ (7)  
⊂ (8) ⊂ 02 (1) 악기 (2) 산 (3) 문구 (4) 열매  
(5) 미술 (6) 계절
- 10-2 03 (1) 그는 아침 일찌 일어나는 편이다. (2) 손으로 잡다. (3) 민수가 산에 간다. 04 (1)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하다. (2) 다리를 건너다.  
(3) 장사꾼의 손에 놀아나다. (4) 발을 내려 창문을 가리다.
- 10-3 05 (1) ① (2) ② (3) ⑦ 06 (1) 다의 (2) 동음 (3)  
다의 (4) 동음 (5) 동음

본문 94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③ 02 ③ 03 ③ 04 ①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③ 10 ④

- 01 '바퀴'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상의어, '바퀴'를 하의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바퀴 - 자동차'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부분과 전체의 관계

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일부 분이 되는 의미 관계이다. 상하 관계가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는 상의어와 다른 쪽에 포함되는 하의어로 이루어진 반면에,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염밀히 따지면 상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02 '이동하다'는 '뛰다, 잠자다'를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하 관계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 03 ⑦에서 앞의 '별'은 주변적 의미로, 뒤의 '별'은 중심적 의

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⑩에서 앞의 '머리'는 주변적 의미로, 뒤의 '머리'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으므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⑦ 앞의 '장기'는 '가장 잘하는 재주'의 의미로 쓰였고, 뒤의 '장기'는 '두 사람이 서른두 짹의 말을 가로세로로 줄이 그어진 판 위에 번갈아 두면서 겨루는 놀이'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한다.

⑧ 앞의 '김'은 '먹을 수 있는 바다의 해초류'의 의미로 쓰였고, 뒤의 '김'은 '수증기가 찬 기운을 받아서 엉긴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체'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한다.

⑨ 앞의 '배'는 '물에서 타는 교통 수단'의 의미로 쓰였고, 뒤의 '배'는 '먹는 과일'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한다.

- 04 '길'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중심적 의미로 쓰인 것은 ①의 '길'이다.

### 오답 풀이

②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의 의미로 쓰였다.

③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로 쓰였다.

④ '둘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의 의미로 쓰였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 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의 의미로 쓰였다.

- 05 ①~④의 '타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다의어에 해당하지만, ⑤는 사전에 다른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가장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 헷갈려요!

##### 다의어의 동음이의어의 사전 제시 방식

다의어는 의미들 사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동음이의어는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단어들 사이의 의미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사전에 각각 다른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 06 <보기>의 '다리'는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와 다의 관계에 있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⑤의 '다리'라 할 수 있다.

- 07 ⑤의 '등을 밀었다.'와 '김 후보를 밀다.'에서 '밀다'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므로 다의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앞의 '차'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달이거나 우린 물'이라는 의미로, 뒤의 '차'는 '바퀴가 굴러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옮기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앞의 '밤'은 '밤나무의 열매'라는 의미로, 뒤의 '밤'은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의 의미

로 사용되었다.

- ③ 앞의 '바르다'는 '풀칠한 종이나 헝겊 따위를 다른 물건의 표면에 고루 붙이다.'의 의미로, 뒤의 '바르다'는 '뼈다귀에 붙은 살을 걷거나 가시 따위를 추려 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앞의 '쓰다'는 '머리에 얹어 덮다.'의 의미로, 뒤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8**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낱말들로, 우연히 소리가 같을 뿐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지 않다. 의미상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한 단어로 실리는 것은 다의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④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각 단어가 쓰인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⑤ 앞의 '배'는 '배나무의 열매'를 의미하고, 뒤의 '배'는 신체의 일부 부위를 의미한다. 이는 각각 다른 표제어에 실리며 동음이의어에 속한다.

**09** <보기>의 '되다'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⑤의 '되다'가 <보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①, ②, ④는 <보기>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다의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③의 '되다'는 '일이 힘에 벅차다.'라는 의미로 쓰여 <보기>의 '되다'와 사전에 별개로 제시된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10** ⑧, ⑨, ⑩와 ⑪, ⑫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실는다.

#### 오답 풀이

- ① ⑧, ⑨, ⑩는 다의 관계에 있는데, ⑧가 중심적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⑪, ⑫는 다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관련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⑪, ⑫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각 단어가 쓰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개념08 [어휘 체계와 양상] ~ 10 [어휘의 의미 관계]

본문 96쪽

## 3 단계

### 실력 완성하기

- 01 ⑤ 02 ③ 03 ⑤ 04 ⑥ 05 ⑥ 06 우리말의 정체성을 훈들 수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손상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07 ② 08 ③ 09 문맥에 따라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① 15 ② 16 ③ 17 ④ 18 (1) ③, ⑦ (2) ②, ⑤

## 01 어휘 체계의 이해

㉠~㉡은 모두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는 순우리말에 해당한다. ㉡, ㉢은 미각이나 색채어가 발달된 우리말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달다'나 '파랗다'의 경우 한자나 외국어로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감 때문에 한자어나 외국어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 모두 한자나 외국어로 표기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말, ㉡은 미각과 관련된 말, ㉢은 색채와 관련된 말로, 모두 예로부터 우리가 사용해 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순우리말에 해당한다.
- ③ ㉠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말이므로, 우리 민족의 풍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달다'가 다양한 말로 쓰였음을, ㉢은 '파랗다'가 다양한 말로 쓰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말이 미각어와 색채어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 02 어휘 체계의 이해

(다)의 각 단어들은 그 세분화된 의미가 모두 다르므로 문장 속에서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④ (다)에 제시된 한자어를 고려할 때, (가)의 '고치다'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는 문장에서 (가)로 바꿔 쓸 수 있다.
- ② (나)에 사용된 '고치다'를 보면,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나)의 '고치다'의 의미는 목적어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고치다'는 하나의 말로만 제시되어 있지만, (다)에서는 '개혁하다, 치료하다, 교정하다, 수정하다, 수선하다'의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에 사용된 한자는 우리말에 비해 세분화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03 어휘 체계의 이해

'컬러'는 '빛깔이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를 순우리말인 '빛깔'로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② <보기>에서는 '컬러, 디자인, 크리스탈 액세서리, 포인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상품, 화사, 고급, 획실'은 한자어인 반면에 '깔끔'은 순우리말에 해당한다.
- ④ 외래어는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이 대부분이므로, 외래어인 '컬러, 디자인'은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로 들어온 말이라 할 수 있다.

## 04 어휘 양상의 이해

㉠은 전문어의 예, ㉡은 은어의 예이다. 전문어와 은어 모두 특정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말로, 이 말들을 일상생활

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과 고립감을 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는 유행어, ③은 전문어, ④는 다의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5 어휘 양상의 이해

(가)에서는 공적인 상황이라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사적인 상황이라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이 같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가 친밀감을 더욱 높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방송 중 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적인 상황이고, (나)는 방송 후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는 표준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나)에서는 '가꼬, 아인가, 모르겠네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지역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④ 표준어는 전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므로, (가)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방송 내용을 누구나 이해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06 어휘 체계의 이해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외래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 07 어휘 양상의 이해

어머니와 지영이의 대화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휘로 인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특정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 상품권)'이라는 어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08 유의 관계의 이해

⑩에 들어갈 한자어로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고정(固定)하다'가 알맞다.

#### 오답 풀이

- ① '정지(停止)하다'는 '움직이고 있던 것이 멎거나 그치다. 또는 중도에서 멎거나 그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⑩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② '중단(中斷)하다'는 '중도에서 끊다.'의 의미이므로, ⑩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성숙(成熟)하다'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다.'의 의미이므로, ⑩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⑤ '성장(成長)하다'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다.'의 의미이므로, ⑩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 09 반의 관계의 이해

㉠~㉢의 밑줄 친 말은 모두 '서다'이지만, 쓰임에 따라 반의어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유의, 반의 관계의 이해

'학생 : 남학생'은 '학생'이 의미상 '남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 11 상하 관계의 이해

'나무-가지'의 관계는 '가지'가 '나무'의 부분을 이루는 '전체-부분 관계'에 해당한다.

### 12 다의 관계의 이해

①~④는 ㉠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어 사전에 한 표제어로 실려 있는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⑤는 ㉠과 의미상 관련이 없어서 사전에 별도의 표제어로 실려 있는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차다'는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는 의미이다.

### 13 다의 관계의 이해

①에서 ㉠의 '열어'는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의 '열어'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② ㉠의 '먹고'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먹지'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잡고'는 '자리, 방향, 날짜 따위를 정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잡았다'는 '일, 기회 따위를 얻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심적 의미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이다.  
④ ㉠의 '갔다'는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갔다'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의 '멀었다'는 '시간적으로 사이가 길거나 오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멀었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헷갈려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사전 제시 방식

중심적 의미는 하나의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이므로, 사전에 제시된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에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다. 반면에 주변적 의미는 하나의 단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이므로, 사전에 제시된 의미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풀이되어 있다.

### 14 동음이의 관계의 이해

<보기>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동음이의어는 의미상 연관성이 없어 사전에 별개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배’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배’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⑦에 들어갈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②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의 의미로 쓰였다.
- ③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배나무의 열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팀이나 사람에게 주는 트로피’의 의미로 쓰였다.

#### 15 다의 관계, 동음이의 관계의 이해

⑦과 ⑧은 의미상 연관성이 없어 사전에 별개로 제시된 동음이의 관계에 해당하고, ⑨과 ⑩은 의미상 연관성이 있어 사전에 한 표제어로 제시된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 16 다의 관계, 동음이의 관계의 이해

이 대화에서 영웅이와 강산이는 ‘풀’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영웅이가 말한 ‘풀’은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의미로 말했지만, 강산이는 ‘세찬 기세나 활발한 기운’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⑪은 적절하지 않다.

#### 17 다의 관계, 동음이의 관계의 이해

④의 예문은 타다<sup>2</sup>–「2」의 예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답 풀이

- ① 타다<sup>1</sup>–「1」과 타다<sup>1</sup>–「2」는 둘 다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다의어이다.
- ② 타다<sup>1</sup>과 타다<sup>2</sup>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다. 의미상 관련이 없고 단지 소리만 같으므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③ 타다<sup>1</sup>–「2」와 타다<sup>2</sup>는 둘 다 【…을】이라 표시되어 있으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 ⑤ 타다<sup>2</sup>–「1」은 ‘받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반의어로는 ‘주다’가 가능하다.

#### 18 다의어의 이해

‘보다’의 중심적 의미는 ③의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이다. ①, ②는 주변적 의미이다. (1)에서의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의미이다. (2)에서의 ‘보다’는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의 의미이다.



## III

# 문장

## 개념01 [문장 성분]

### 주성분

본문 103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       |   |
|-------|---|
| 01-1  | 01 (1) ○ (2) × (3) × (4) ○ 02 (1) 철수도 (2)<br>그것은 (3) 고향이 (4) 학교에서 (5) 아버지께서   |
| 01-2  | 03 (1) ◎ (2) ◎ (3) ◎ (4) ⑦ (5) ⑦  |
| 01-3  | 04 (1) ○ (2) ○ (3) × (4) × 05 (1) 아니다 (2)<br>시인이다 (3) 되었다 (4) 뜯는다 (5) 기다린다 06 |
| 01-4  | (1) ⑦ (2) ◎ (3) ◎ (4) ◎ (5) ◎   |
| 01-5  | 07 (1) 대상 (2) 무엇을 (3) 보조사 (4) 주성분 08  |
| 01-6  | (1) 과일 (2) 노래도 (3) 만두를 (4) 선생님을 (5)   |
| 01-7  | 그림만 09 (1) ○ (2) × (3) × (4) ○ (5) ○  |
| 01-8  | 10 (1) × (2) ○ (3) × (4) ○ 11 (1) 수증기가  |
| 01-9  | (2) 사실이 (3) 장군이 (4) 고양이가 (5) 회장 12  |
| 01-10 | (1) ○ (2) ○ (3) × (4) × (5) ○   |

본문 106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④ | 02 ⑤ | 03 ③ | 04 ① | 05 ④ | 06 ③ | 07 ② |
| 08 ③ | 09 ④ | 10 ④ | 11 ② |      |      |      |

- 01 ‘교실에서’는 장소를 나타낸 말로 ④에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즉,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누가’, ② ‘우리는’, ③ ‘할아버지께서’, ⑤ ‘비가’가 주어이다.

- 02 ‘화가가’는 ‘되는’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이고, 나머지는 주어이다.

#### 오답 풀이

③ ‘복숭아와 사과는’에서 ‘와’는 접속 조사로 ‘복숭아는 과일이다.’와 ‘사과는 과일이다.’의 두 문장이 접속 조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헷갈려요! 주어와 보어의 구별

주어와 보어는 ‘체언+조사(이/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태는 같으나,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것은 보어이다.

예 선생님이 청소를 했다.(주어) /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보어)

**03** ‘오빠만’은 ‘체언+보조사’의 형태로, 보조사 ‘만’을 주격 조사 ‘가’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보어, ② 부사어, ④ 관형어, ⑤ 부사어에 해당한다.

**04** ‘빠르다’는 형용사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고, 나머지는 동사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05** ‘다가왔다’는 동사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06** ‘죽도’는 ‘체언+보조사’의 형태로 실현된 목적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사어, ② 주어, ④ 주어, ⑤ 부사어이다.

**07** ‘눈도’, ‘코도’는 ‘예쁘다’의 주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 오답 풀이

- ① ‘과일’, ③ ‘그림도’, ④ ‘전화기까지’, ⑤ ‘잠만’이 목적어이다.

#### 헷갈려요! 목적어를 찾는 방법

문장에서 ‘체언+을/를’의 형태를 지닌 것이 목적어가 된다. 조사가 생략되거나 ‘을/를’이 아닌 보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목적어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조사가 생략된 곳에 ‘을/를’을 넣어 보거나 보조사를 ‘을/를’로 바꾸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목적어이다.

예) 나는 노래 불렀어.(→ 나는 노래를 불렀어.)

나는 국어만 잘한다.(→ 나는 국어를 잘한다.)

**08** ‘문제를’은 목적어로, 서술어 ‘해결했다’의 동작 대상이 된다.

**09**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사람이’는 ‘됐다(되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이다.

**10** ⑦~⑩은 보어로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 오답 풀이

- ② ⑦~⑩은 모두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된 형태이다.  
③ ⑦~⑩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체언+이/가’의 형태이다.

**11** ⑧에는 ‘됩니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가 들어가야 한다.

## 개념02 [문장 성분]

## 부속 성분, 독립 성분

본문 109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2-1 01 (1) 붉은 (2) 모든 (3) 우리 (4) 언니의  
02 (1) 안경 (2) 덕 (3) 소설 (4) 사과 03 (1) ⑦  
(2) ⑨ (3) ⑪  
02-2 04 (1) × (2) ○ 05 (1) 정말 (2) 동생에게 (3) 따  
뜻하게 (4) 과연, 시험에 06 (1) 그는 마음이 착하  
다 (2) 멀리 (3) 높은 (4) 나른다  
02-3 07 (1) × (2) × (3) ○ (4) ○ 08 (1) ⑨ (2) ⑪  
(3) ⑫

본문 110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①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① 09 ⑤ 10 ⑤ 11 ② 12 ③

**01** ①에는 주어, 서술어 이외에 ‘별씨’, ‘예쁘게’라는 부사어만 나타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③ ‘세’, ④ ‘할머니’, ⑤ ‘기다리던’이 관형어이다.

**02** 관형어는 체언 앞에 놓여 그 체언을 꾸며 준다. ④는 용언 앞에 빙칸이 있으므로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들어가야 한다.

**03** ‘힘없이’는 용언인 ‘쓰리졌다’를 꾸며 주므로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04** ‘재미있는’은 ‘운동’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제발’은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② ‘동물원에서’는 ‘보았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③ ‘활짝’은 ‘피었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⑤ ‘그러나’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이다.

**05** ⑦ ‘소란하던’은 ‘수솟잎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06** ‘매우’는 다른 부사어인 ‘멀리’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과연’은 ‘민재는 모범생이구나.’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 ② '맛있게'는 '만들었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③ '가게에서'는 '샀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⑤ '운동장에서'는 '놀았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07** ④에서 '제발', '다시'는 부사어이고, '돌려주세요'는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형', ② '자', ③ '저런', ⑤ '그래'는 독립어이다.

**08** '독립어'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09** '젊음'은 제시어로 독립어이다.

**10** ⑤는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주어+부사어+관형어+보어+서술어  
 ②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③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④ 관형어+주어+보어+서술어

**11** '집으로, 어서, 빨리'는 모두 부사어로, ②에는 3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나머지 문장에는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 오답 풀이

- ① '하얀'은 관형어이고, '참'은 부사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③ '저기에'는 부사어이고, '작은'은 관형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④ '매우'와 '높이'는 모두 부사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⑤ '하지만'과 '아직'은 모두 부사어로 2개의 부속 성분이 쓰였다.

**12** '매우'는 '세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본문 114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③ 02 ③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⑤ 10 ② 11 ④

**01** ③은 '-지만'이라는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② 어미 '-고'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앞뒤 절의 사건에 계기적 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고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02** ⑤, ⑥, ⑦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⑧, ⑨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헷갈려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일반적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앞 절과 뒤 절의 서술어가 동일할 때는 앞 절의 서술어가 생략되기도 한다.

예 나는 사과를 먹고, 그는 배를 먹는다.(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그는 배를 먹고, 나는 사과를 먹는다.(○)

→ 나는 사과를, 그는 배를 먹는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앞 절과 뒤 절의 서술어가 동일해도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비가 와서 길이 젖었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길이 젖어서 비가 왔다.(✗)

예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근로자가, 기업도 없다.(✗)

**03** ⑤은 선택, ⑥은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⑦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흔문장이고, ⑧은 목적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4** ⑨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5** <보기> 문장은 앞뒤 절이 '나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06** ⑩은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려고'라는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⑪, ⑫은 나열, ⑬은 선택, ⑭은 대조의 의미를 갖는 연결 어미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7** ⑪에 쓰인 '-(으)나'와 <보기>의 '-어서'는 원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 개념03 [문장의 짜임]

### 이어진문장

본문 113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3-1** 01 (1) × (2) ○ (3) ○ (4) ○ 02 (1) 집에 가는지/거나 학교에 가거라. (2) 나는 노래를 부르고/지만/나) 동생은 춤을 춘다. (3) 형은 대학생이/고/지만/나) 누나는 고등학생이다. 03 (1) ⑤ (2) ⑥ (3) ⑦ (4) ⑧ (5) ⑨  
**03-2** 04 (1) 겹문장 (2) 의존적 (3) 되지 않는다 (4) 원인 05 (1) ○ (2) ○ (3) × (4) × (5) ○ (6) × 06 (1) ⑩ (2) ⑪ (3) ⑫ (4) ⑬

**오답 풀이**

①, ⑥는 조건, ②는 양보, ③은 의도의 의미 관계를 지닌다.

**08** <보기>의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③도 ‘–어서’라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9** 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0** ②는 두 홀문장을 결합하면 ‘원인’의 의미 관계가 되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된다.

**오답 풀이**

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③ ‘나는 버스를 탔고(탔지만), 동생은 택시를 탔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④ ‘토끼는 낮잠을 잤지만(잤고), 거북이는 부지런히 기어갔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민경이는 운동을 좋아하고(좋아하지만), 민철이는 음악을 좋아한다.’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1** ①은 원인, ②는 양보, ③, ⑤는 의도나 목적의 의미 관계를 지닌다.

**개념 04**

[문장의 짜임]

**안은문장, 안긴문장****1 단계****개념 다잡기**

**04-1** 01 (1) 목적어 (2) –기 (3) 조사 02 (1) 색깔이 희기 (2) 그가 거짓말을 했음 (3) 그가 오기 (4) 아침을 먹기 (5) 그가 정직했음 03 (1) ⑦ (2) ⑨ (3) ⑧ (4) ⑨ (5) ⑦

**04-2** 04 (1) × (2) × (3) ○ (4) ○ 05 (1) 몸에 좋은 (2) 우리가 먹은 (3) 우리가 어제 본 (4) 향기가 좋은 (5) 우리가 돌아왔다는 06 (1) × (2) ○ (3) × (4) ○

**04-3** 07 (1) 소리도 없이 (2) 이가 시리도록 (3) 아이들이 지나가게 08 (1) 뛰었다 (2) 사라진 (3) 말했다 09 (1) ○ (2) × (3) × (4) ○

**04-4** 10 (1) × (2) ○ (3) ○ 11 (1) ✓ (2) □ (3) ✓ (4) □ (5) ✓

**04-5** 12 (1) ○ (2) × 13 (1) 인간은 존엄하다고 (2) 그가 옳지 않다고 (3) 저 별의 이름을 아느냐고 (4) “바로 출발하자.”라고 14 (1) ⑦ (2) ⑦

**2 단계****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② | 02 ⑤ | 03 ② | 04 ⑤ | 05 ① | 06 ④ | 07 ③ |
| 08 ④ | 09 ③ | 10 ② | 11 ⑤ | 12 ③ | 13 ② | 14 ④ |
| 15 ② | 16 ① | 17 ③ | 18 ③ |      |      |      |

**01** ②는 ‘예고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그가 오기’, ③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 ④ ‘남편의 편지가 오기’, ⑤ ‘내가 옳았음’은 모두 명사절이다.

**02** ⑤의 ‘학교에 가기’라는 명사절은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너를 보기’, ② ‘그가 우리를 속였음’은 주어의 역할, ③ ‘비가 오기’, ④ ‘그가 옳았음’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03** <보기>는 ‘아버지가 옳았음’이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도 ‘여름이 오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내가 신었던’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돈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키가 제일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내가 제일 예쁘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4** ⑤는 ‘자신이 소중하다는’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말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부피가 매우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수첩이 좋아한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우리가 그 시합에서 이기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5** ①은 ‘장미가 예쁜’이라는 문장이 안긴 것으로, ‘장미가’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따라서 ‘예쁜’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② ‘그가 거짓말을 했음’이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  
③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한다.  
④ ‘인성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을 한다.  
⑤ ‘친구가 도착하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

**06** <보기>는 ‘동생이 태어난’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의 ‘내가 공부한’ 역시 관형절로 전체 문장 속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성격이 매우 좋다.’는 서술절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 ② ‘꽃이 화려하게’는 부사절로, 부사어 역할을 한다.
- ③ ‘집에 누가 있느냐고’는 인용절이다.
- ⑤ ‘그가 실험에 성공했음’은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한다.

**07** ③은 ‘기분이 좋게’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비가 오는’은 관형절이다.
- ② ‘승민이가 정직함’은 명사절이다.
- ④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는 인용절이다.
- 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08** <보기>는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아무도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도왔다’라는 용언을 꾸며 준다.
- ② ‘아무도 모르게’가 부사절로, 부사어 역할을 한다.
- ③, ⑤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09** ③에서 ‘우산도 없이’는 부사절로, ‘걸었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향기로운’은 ‘차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로, 관형어 역할을 한다.
- ② ‘恚씨’가 참으로 헤프다’는 서술절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 ④ ‘눈이 온다는’은 관형절로, ‘예보’를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 ⑤ ‘희망이 가득한’은 관형절로, ‘눈길’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10** ②는 ‘미소가 아름답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 홀문장이다.
- ⑤ ‘철수가 그린’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1** ①~④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⑤는 ‘길가에 피어 있는’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2** <보기>는 ‘덩치가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도 ‘딸이 선생님이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3** ②는 ‘인간이 평등하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용기가 부족하다’는 서술절이다.
- ③ ‘눈이 내리는’은 관형절이다.
- ④ ‘도움 없이’는 부사절이다.
- 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4** 직접 인용절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격 조사 ‘라고’가 결합한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따옴표를 찍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가 결합한다.

**오답 풀이**

- ① → 소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 ② →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자.”라고 말했다.
- ③ → 소녀는 단풍잎이 눈에 따갑다고 외쳤다.
- ⑤ → 소녀는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라고 속삭였다.

**15** ②에는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간접 인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인용격 조사 ‘고’가 쓰여야 한다.

**16** ①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겹문장이고, 나머지는 홀문장이다.

**17** ③은 이어진문장이고, 나머지는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입맛이 까다롭다’는 서술절이다.
- ② ‘그가 옳았음’은 명사절이다.
- ④ ‘그 일이 성공하기’는 명사절이다.
- ⑤ ‘이제 출발하자고’는 인용절이다.

**18** ③에는 ‘숨이 차게’라는 부사절이 나타나 있다. ①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②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④는 홀문장, 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개념01 [문장 성분] ~ 04 [문장의 짜임]

본문 123쪽

### 3 단계 실력 완성하기

- |      |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⑤ | 04 ③   | 05 ③ | 06 ⑤ | 07 ③  |
| 08 ③ | 09 ⑤ | 10   | • 공통점: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어 뜻을 더해 주는 부속 성분이다. • 차이점: ⑦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⑧은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      |   |
| 11 ⑤ | 12 ④ | 13   | • 이어진문장: 신발이 눈에 젖어서(젖으니) 얼었다. • 안은문장: 눈에 젖은 신발이 얼었다.                                     |      |      |   |
| 14 ① | 15 ④ | 16 ③ | 17 ④   | 18 ⑤ | 19   | • 직접 인용: 선생님께서 “오늘 대청소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 간접 인용: 선생님께서 오늘 대청소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
| 20 ④ | 21 ② | 22 ① | 23 ③   | 24 ② | 25 ① |   |

#### 01 문장 성분의 분석

‘학교에서’는 주어이다. ‘학교’와 같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은 ‘에서’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 02 부속 성분의 이해

‘시간’은 주격 조사가 생략된 주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관형어, ④, ⑤ 부사어이다.

## 03 문장 성분의 구분과 이해

‘셋이’와 ‘할머니만’은 모두 주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목적어이고, ‘어머니’는 주어이다.  
② ‘동생은’은 주어이고, ‘나비가’는 보어이다.  
③ ‘왕이다’는 서술어이고, ‘예쁘게’는 부사어이다.  
④ ‘가방에’는 부사어이고, ‘선물을’은 목적어이다.

## 04 문장 성분의 이해

⑦은 이어서 나오는 ‘그는 창의적인 사람이야.’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 05 문장의 짜임 이해

⑤의 ‘별을’은 안긴문장(‘반짝이는’)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에서는 목적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삼았다’는 주어 ‘그는’ 이외에도 ‘위기를’(목적어), ‘좋은 기회로’(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② ‘바다가’는 ‘파랗다’의 주어이고, ‘눈이’는 ‘부시게’의 주어이다.  
④ ⑥의 안긴문장은 ‘기회가 좋다.’이므로 ‘좋은’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⑤의 안긴문장은 ‘별이 반짝이다.’이므로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다.  
⑤ ⑥의 ‘눈이 부시게’는 ‘파랗다’를 꾸며 주고, ⑤의 ‘반짝이는’은 ‘별’을 꾸며 준다.

## 06 주성분의 이해

②은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④ 서술어로, 모두 주성분이다.

## 07 부사어의 이해

③에서 부사어 ‘너무’는 서술어 ‘샀다’를 꾸며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오는 관형어 ‘헌’을 꾸며 준다.

### 오답 풀이

- ① ‘눈이 부시게’는 ‘눈이 부시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절’에 해당하며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② ‘하늘에서’와 ‘펑펑’ 모두 서술어 ‘내리고 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④ ⑦의 ‘엄마와’와 ⑤의 ‘취미로’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그런데 ⑤의 ‘취미로’와 달리 ④의 ‘엄마와’는 생략하면 온전한 문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다.  
⑤ ⑦의 ‘재로’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부사어이고, ⑤의 ‘재가’는 ‘되다’ 앞에 보격 조사 ‘가’가 결합한 보어이다. 그런데 ⑤의 ‘재로’와 ⑦의 ‘재가’를 생략하면 온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

에서는 둘 다 필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 08 문장 성분의 구분과 이해

〈보기〉는 ‘독립어+주어+부사어+서술어’로 이루어졌다.

③도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관형어+주어+부사어+서술어  
② 독립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④ 독립어+주어+관형어+서술어  
⑤ 관형어+부사어+주어+서술어

## 09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 분석

‘우리’는 관형어이고, ‘매우’와 ‘깨끗이’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기영이가’는 ‘누가’에, ‘닦았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②, ④ 기영이가(주어)+유리창(목적어)+닦았다(서술어)  
③ 〈보기〉의 문장은 출문장이다.

## 10 관형어와 부사어의 비교

⑦은 ‘장미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⑦은 ‘예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어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이다.

## 11 문장의 짜임 이해

‘마이크도 없이’는 부사절로, 용언인 ‘하였다’를 꾸며 준다. 따라서 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얼굴이 동그랗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겹문장이다.  
② ‘가을이 오다.’와 ‘산에 단풍이 든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그는 자라다.’와 ‘그는 과학자가 되었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집으로 가는’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2 이어진문장의 종류 이해

④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13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만들기

〈보기〉의 앞 문장은 뒤 문장의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이므로 ‘–어서’, ‘–으니’와 같은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보기〉의 뒤 문장 앞에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어가 앞에 와야 하므로 앞 문장을 관형절로 바꾸어 관형절을 안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14 문장의 짜임 구분

〈보기〉는 ‘옥같이 맑은’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①에도 ‘굳은’이라는 관형절이 나타나 있다. ‘굳은’은 ‘땅이 굳다’에서 ‘땅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오답 풀이**

- ② '미소가 아름답다'는 서술절이다.
- ③ '말도 없이'는 부사절이다.
- ④ 훌문장이다.
- ⑤ '그가 결승전에 오르기'는 명사절이다.

**15 안은문장의 이해**

⑦에서 '두 볼에 흐르는'의 주어는 '눈물이'로, 관형절이 꾸며 주는 체언과 동일한 문장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다.

**16 안긴문장의 이해**

③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인용절이다. 인용절에는 인용격 조사가 포함된다.

**오답 풀이**

- ① '마당이 매우 넓다'가 서술절이다.
- ② '동물원에 있는'이 관형절이다.
- ④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명사절이다.
- ⑤ '그녀의 도움 없이'가 부사절이다.

**17 안은문장의 이해**

서술어 '물었다'는 '~에게 ~을 묻다'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쓰인다. 즉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 ① '준이가 입원했음을 아느냐고'가 인용절로,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②, ③ '그는 나에게 [(준이가 입원했음을 아느냐고) 물었다.]로, 세 개의 훌문장이 결합된 겹문장이다.
- ⑤ '준이가 입원했음'이라는 명사절은 뒤에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한다.

**18 겹문장의 이해**

⑤에는 '신은 존재한다고'라는 간접 인용절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④ ⑤은 훌문장이다.
- ② ⑦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만, ⑤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③ '입이 뾰족한'은 관형절로 '고양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19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만들기**

직접 인용절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격 조사 '라고'가 결합한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따옴표를 찍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가 결합한다.

**20 안긴문장에 대한 이해와 구분**

⑩에는 '내가 늘 쉬던'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는데 이 절은 '내가 공원에서 늘 쉬었다.'라는 문장에서 부사어인 '공원에서'가 생략된 형태이다.

**오답 풀이**

- ① '자식이 건강하기'는 명사절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② '연락도 없이'는 부사절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③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은 명사절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⑤ '아주 어려운'은 관형절로, '과제가 아주 어렵다.'에서 주어인 '과제'가 생략되었다.

**21 문장의 짜임 구분**

②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나머지는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③~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22 안긴문장과 문장 성분의 이해**

ⓐ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④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⑤ 관형절로 쓰여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23 안은문장의 이해**

⑦은 '글씨가 너무 작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두 문장은 모두 안은문장이다.
- ④ ⑦의 안긴문장은 간접 인용절이다.
- ⑤ '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결합되었다.

**24 안긴문장의 역할 이해**

<보기>의 설명은 주어에 대한 것으로, ②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된 것으로 주어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관형절로 관형어 역할을 한다.
- ③ 부사절로 부사어 역할을 한다.
- ④ 서술절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 ⑤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를')가 결합된 것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25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이해**

①은 '추운'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② '얼음을 먹는'이 관형절에 해당한다.
- ③ '추위와 상관없이'는 부사절에 해당한다.
- ④ '날씨가 춥다고'는 인용절에 해당한다.
- 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대조의 의미 관계가 나타난다.

## 개념05 [문장의 표현] 종결 표현

본문 129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5-1 01 (1) ✗ (2) ○ (3) ○  
02 (1) ✗ (2) ○ (3) ✗ (4) ○  
03 (1) 질문 (2) 종결 어미 (3) 수사 의문문  
04 (1) ⓘ (2) ⓘ (3) ⓘ
- 05-2 05 (1) 하도록 요구하는 (2) 듣는 이 (3) 동사  
(4) –어라  
06 (1) ✓ (2) ✓ (3) □ (4) □ (5) ✓  
07 (1) ○ (2) ✗ (3) ✗ (4) ○ (5) ✗

본문 130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④ 09 ④ 10 ④

- 01 ①은 평서문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전달한다.

#### 오답 풀이

② 의문문, ③ 명령문, ④ 청유문, ⑤ 감탄문이다.

- 02 <보기> 문장은 평서문으로, ④는 평서문에 대한 설명이다.

- 03 ⑤는 듣는 이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다.

#### 오답 풀이

①, ③, ④ 설명 의문문, ② 판정 의문문이다.

- 04 ③은 ‘예’, ‘아니요’와 같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 오답 풀이

①, ⑥ 판정 의문문, ② 수사 의문문, ④ 설명 의문문이다.

- 05 ③은 듣는 이에게 ‘동생과 나가서 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명령문이다.

#### 오답 풀이

① 청유문, ② 의문문, ④, ⑤ 감탄문이다.

- 06 명령문은 표현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07 ④는 청유문이고, 나머지는 명령문이다.

- 08 ④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다.

- 09 ④는 말하는 이가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다.

#### 오답 풀이

① 평서문, ② 청유문, ③ 의문문, ⑤ 명령문이다.

#### 헷갈려요! 명령문과 감탄문의 구별

명령문과 감탄문은 모두 ‘–아라/–어라’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문장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장에 쓰인 서술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해 보고, 문장의 의미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본다. 서술어가 동사이고 듣는 이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면 명령문이고, 서술어가 형용사이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면 감탄문이 된다.

예 숙제를 하고 놀아라.(명령문)

정원에 핀 장미꽃이 정말 예뻐라.(감탄문)

- 10 ⑦의 주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모두 포함한다.

## 개념06 [문장의 표현] 높임 표현

본문 133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6-1 01 (1) ○ (2) ○ (3) ✗ 02 (1) 주무시다 (2) 계시다 (3) 편찮으시다 03 (1) 간 (2) 직 (3) 직  
06-2 04 (1) ○ (2) ✗ (3) ✗ 05 (1) 깨, 여쭈어보자/여쭤보자 (2) 모시고 06 (1) ✓ (2) □ (3) ✓  
06-3 07 (1) ⓘ (2) ⓘ (3) ⓘ (4) ⓘ (5) ⓘ (6) ⓘ (7) ⓘ 08 (1) ⓘ (2) ⓘ (3) ⓘ

본문 134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② 10 ③

- 01 ②에서 ‘파님’은 높여야 할 인물인 할머니와 관련되므로 주체 높임법 중에서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⑤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③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④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02** ④는 객체 높임법에 대한 설명이다.

**03** ③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고 ‘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주체 높임법(직접 높임), ⑤ 주체 높임법(간접 높임)과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04** ‘모시다’는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로,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것은 아니다.

**05** ②는 ‘해체’가 쓰여 비격식체이고, 나머지는 격식체이다.

**오답 풀이**

- ① ‘하십시오체’, ③ ‘해라체’, ④ ‘하게체’, ⑤ ‘하오체’가 쓰여 격식체이다.

**06** ②에서 ‘지내보세’는 ‘하게체’가 쓰였다.

**07**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하게체, 해라체, 해체’는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고,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요체’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다. ④에서 ‘가자’는 ‘해라체’가 쓰인 것이고, ‘가게’는 ‘하게체’가 쓰인 것으로 둘 다 상대를 낮추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해라체-해요체, ② 해라체-해요체, ③ 하게체-하오체, ⑤ 해라체-하오체가 쓰였다.

**08** ⑤에는 주체 높임법이 나타나고, 나머지에는 객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09** <보기>와 ②에는 주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④ 상대 높임법, ③, ⑤ 객체 높임법이 나타난다.

**10** ‘께서’라는 주격 조사와 ‘오셨다’에 나타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나타나고, ‘뵙고’라는 특수한 어휘에는 객체 높임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께서’와 ‘하셨어’라는 표현으로 보아,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외삼촌을 집으로 오라고’라는 표현으로 보아, 외삼촌은 높이지 않고 있다.  
 ② ‘-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④ ‘아버지’는 주체이고, ‘할머니’는 객체이다. 따라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모두 나타난다.  
 ⑤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상대 높임법은 ‘없으니’에 쓰인 연결 어미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십시오’에 쓰인 종결 어미의 형태를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개념07**  
[문장의 표현]**시간 표현**

본문 137쪽

**1 단계** | **개념 다잡기**

- |             |   |
|-------------|---|
| <b>07-1</b> | 01 (1) 시제 (2) 발화시 (3) 과거, 미래 (4) 일치<br>02 (1) 과 (2) 현 (3) 미 (4) 현 03 (1) 현재 시제<br>(2) 현재 시제 (3) 과거 시제 (4) 미래 시제 (5) 미<br>래 시제 04 (1) 과거 시제 (2) 현재 시제 (3) 과거<br>시제 (4) 미래 시제 (5) 현재 시제 |
| <b>07-2</b> | 05 (1) × (2) × (3) ○ (4) ○ (5) ○ 06 (1) ⊖<br>(2) ⊇ (3) ⊖ (4) ⊇  |

본문 138쪽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④ | 02 ③    | 03 ⑤ | 04 ⑤ | 05 ⑤ | 06 ④ | 07 ③ |
| 08 ⑤ | 09 ②, ④ |      | 10 ④ | 11 ① |      |      |

**01** <보기> 문장의 ‘돌아오셨다’는 ‘돌아오-+-시-+-었-+-다’로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이 쓰여 과거 시제이다. ④에도 선어말 어미 ‘-았-’이 쓰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② 현재 시제, ③ 현재 시제, 진행상, ⑤ 미래 시제이다.

**02** ③에는 미래 시제에 쓰이는 ‘-ㄹ 것’이 쓰이고 있다.

**03** 선어말 어미 ‘-겠-’과 관형사형 어미에 의존 명사가 결합된 ‘-(으)ㄹ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⑦은 과거 시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다.  
 ② ⑨은 현재 시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일치한다.  
 ③ ⑩은 미래 시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다.  
 ④ ⑪에서 시제를 드러내는 표현은 ‘-았-’이고, ⑫에서 시제를 드러내는 표현은 ‘-는-’으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04** ‘바쁜’은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② 과거 시제, ③, ④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05** <보기>에 쓰인 ‘-겠-’과 ⑤에 쓰인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미래 시제, ②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③ 추측, ④ 의지를 나타낸다.

06 ④는 진행상이고, 나머지는 완료상이다.

07 ⑦, ⑨, ⑩에는 완료상이 나타나고, ⑧, ⑪에는 진행상이 나타난다.

08 <보기>의 ⑦에는 완료상이 나타난다. ⑤에도 ‘–어 있다’가 결합하여 완료상이 나타나고, 다른 문장에는 진행상이 나타난다.

09 <보기>에는 ‘–고 있었다’를 통해 진행상과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10 ‘–겠–’은 의지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이 사용되었다.
- ② 두 문장 모두 미래 시제가 나타난다. ‘나는 도서관에 갈 것이다.’에서는 ‘–ㄹ 것’이라는 미래 시제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 ③ ‘내릴’에서 ‘–ㄹ’은 관형사형 어미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11 ①은 ‘–어 있다’를 통해 완료상과 현재 시제를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②, ③ 진행상과 현재 시제. ④, ⑤ 완료상과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 개념08 [문장의 표현]

###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본문 141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8-1 01 (1) ○ (2) ✕ (3) ○ (4) ✕ 02 (1) 동생이 언니에게 업혔다. (2) 내 마음이 그녀에게 훈들렸다.  
(3) 벽에 걸린 시계가 나에게 보였다. 03 (1) ○ (2) ○ (3) ✕ (4) ✕ (5) ○ (6) ✕
- 08-2 04 (1) 주동, 사동 (2) –우–, –구–, –추– (3) –시–  
–키다, –게 하다 05 (1) 엄마가 아기를 재운다. (2)  
햇빛이 얼음을 녹였다. (3) 선생님이 민찬이에게  
회장을 맡겼다.  
06 (1) ☑ (2) □ (3) □ (4) □ (5) ☑ (6) ☑

본문 142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⑤ 03 ③ 04 ② 05 ① 06 ④ 07 ⑤  
08 ② 09 ② 10 ④

01 ②의 ‘보이다’에 쓰인 ‘–이–’는 사동 접미사로 ②는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구별

사동 표현에 쓰이는 접미사 중 ‘–이–’, ‘–하–’, ‘–리–’, ‘–기–’는 피동 표현에도 쓰이므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구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동 표현은 어떤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사동 표현임에 유의한다.

예 저기 바다가 보인다.(피동 표현)

형은 동생에게 바다를 보였다.(사동 표현)

02 ⑦은 능동 표현으로 주어가 어떤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⑤는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03 ‘불리우는’은 잘못된 표현으로 ‘부르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붙여서 ‘불리는’으로 써야 한다.

04 ‘과일을 아기에게 먹였다.’는 사동 표현이다. 제시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과일이 아기에게 먹혔다.’가 된다.

05 ①은 누가 동작을 했는지 그 동작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 바람이 나뭇가지를 훈들었다.
- ③ → 경찰이 소매치기를 쳤고 있다.
- ④ → 인부들이 썩은 나무를 잘랐다.
- ⑤ → 이 박사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06 ‘놀리다’는 ‘놀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은 것이 아니라 원래 ‘놀리다’라는 단어임에 유의한다.

07 ⑦과 같은 사동문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⑤은 동생에게 스스로 옷을 입도록 시키는 의미만 지닌다.

#### 오답 풀이

- ①, ②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에 해당하므로 ‘옷을 입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동생’으로 같다.
- ③ 사동문에서 새로운 주어는 행동을 시키는 주체가 된다.
- ④ 주동문의 동사에 사동 접미사나 ‘–게 하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08 ②는 사동 표현으로 생각을 넓혀 주는 ‘책’의 기능을 강조한 표현이다. 나머지는 피동 표현이다.

09 <보기>에서 ‘익히다’는 ‘익다’의 사동사이다. ②의 ‘높였다’도 ‘높다’의 사동사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피동사이다.

10 사동문을 만들 때는 주동문에 쓰인 용언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인다.

## 개념09 [문장의 표현]

### 부정 표현, 중의적 표현

본문 145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9-1 01 (1) '말다' 부정문 (2) '안' 부정문 (3) '안' 부정문 (4) '못' 부정문 (5) '못' 부정문 02 (1) 긴 (2) 짧 (3) 긴 (4) 짧 03 (1) 말자 (2) 안 (3) 못 (4) 못  
09-2 04 (1) 중의적 (2) 반점 (3) 의사소통  
05 (1) × (2) × (3) ○ (4) ○ 06 (1) ⓐ (2) Ⓡ (3) ⓒ (4) ⓑ

본문 146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④

01 ②는 '철수가 노느라'라는 표현으로 보아, 주체의 의지로 집에 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안'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므로 '못'이 적절하다.

02 ②은 '안' 부정문으로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03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므로 ⑤에는 '안'을 넣어야 한다.

04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같이 단순한 사실을 부정할 때는 '안' 부정문을 사용한다.

05 밑줄 친 문장에 쓰인 부정 표현은 단순한 사실의 부정을 나타낸다. ④도 어떤 일이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의 부정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의지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지 부정'이다.  
② 주체의 의지에 의해 '그 식당을 안 갔음'을 나타내므로 '의지 부정'이다.  
③ '못' 부정문이므로 주체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주체의 의지에 의해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의지 부정'이다.

06 ③은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으로 중의적 표현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빵을 먹었다.', '나는 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다.' '나는 빵을 먹지 않고 빵을 만들었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사람들이 전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일부만 왔다.'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내 동생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내 동생은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나는 형과 함께 강아지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나는 형도 찾고 강아지도 찾으러 돌아다녔다.'로 해석할 수 있다.

07 ③은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으로 중의적 표현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어머니를 찍은 사진', '어머니가 찍은 사진', '어머니가 소유한 사진'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 '기문이가 보고 싶어 하는 동창생', '기문이를 보고 싶어 하는 동창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④ '민수의 부지런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민수가 부지런한데 그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⑤ '토마토와 참외 각각 두 개', '토마토와 참외를 합쳐서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08 문장의 종결 표현은 문장의 중의성을 없애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9 <보기>에는 부정 범위에 의한 중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정 범위가 '다해', '어제', '걸어서', '학교' 중에서 무엇을 부정하느냐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10 ④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인지, 친구의 여동생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인데, 고친 문장에서도 여전히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 개념05 ~ 09 [문장의 표현]

본문 148쪽

#### 3 단계 실력 완성하기

-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공통점: 주체 높임  
법으로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차이점: ⑦은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고 있으나(직접 높임), ⑨은 주어와 밀접한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간접 높임).  
13 ④ 14 ④ 15 ① 16 ⑦ 내일, -겠- ⑨ 오늘, -ㄴ-  
⑩ 어제, -은 17 ⑤ 18 ① 19 ③ 20 ⑤  
21 ⑦ 나는 동생을 문 뒤에 숨겼다. ⑨ 나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22 ② 23 ⑦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 잠을 자지 못  
한 것이고, ⑨은 주체의 의지에 의해 잠을 자지 않은 것이다.  
24 ④ 25 ① 26 ③

## 01 종결 표현의 구분

첫 번째 문장에는 의문문이, 두 번째 문장에는 명령문이, 세 번째 문장에는 청유문이 쓰이고 있다.

## 02 종결 표현의 의도 이해

②는 동생에게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묻고 있다. 나머지 종결 표현은 의문문이지만 듣는 이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다.

## 03 문장의 종결 표현 이해

③은 감탄문이고, 나머지는 평서문이다.

## 04 문장의 종결 표현 이해

①은 부드러운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문이다.

## 05 종결 표현의 효과 이해

명령문은 표현 의도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06 높임 표현의 적절한 사용

아버지보다 웃어른인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지 않은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체 높임법에 쓰이는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낮잠을 주무시고'라고 고쳐야 한다.
- ② 주체 높임법에 쓰이는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진지를 잡수시고 (드시고)'라고 고쳐야 한다.
- ④ 객체 높임법에 쓰이는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선생님께 여쭈어 보라고'로 고쳐야 한다.
- ⑤ 주체 높임법에 쓰이는 특별한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로 고쳐야 한다.

## 07 높임 표현의 이해

⑤에는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 오답 풀이

- ① 하십시오체가 쓰여 듣는 이를 아주 높이고 있다.
- ② '나이'를 높인 '연세'가 쓰였다.
- ③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 ④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08 높임의 대상 이해

④에는 높임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높임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에서 '아주머니'를 높이려면 '만난'이라는 표현 대신에 '뵌'이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께'와 '여쭈어라'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② '모시고'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께'와 '드렸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경찰관'을 높이고 있다.

⑤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09 높임법에 대한 이해

③에서 '선생님'은 주체가 아니라 '상대'이다.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자신을 낮추는 '제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습니다'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⑦에서 높임의 대상은 주체인 '할머니'로 주격 조사와 주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⑨에서 높임의 대상은 객체인 '어머니'로 부사격 조사와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고 있다.
- ③ ⑩에서 높임의 대상은 주체인 '할아버지'로 주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⑤ ⑪에서 높임의 대상은 상대인 '아버지'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 10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와 비격식체 이해

⑤는 해라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하게체, ② 하십시오체, ③ 해라체, ④ 해체이다.

## 11 높임 표현의 이해

③은 주체인 '아버지'와 객체인 '할머니'를 모두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법과 상대방을 아주 높인 '하십시오체'가 쓰였다.
- ② '선배'를 높인 객체 높임법과 상대방을 아주 낮춘 '해라체'가 쓰였다.
- ④ '아버지'를 높인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 ⑤ '할아버지'를 높인 주체 높임법과 상대방을 아주 높인 '하십시오체'가 쓰였다.

## 13 시제의 이해

⑧은 과거 시제이고, 나머지는 현재 시제이다.

## 14 시간 표현의 이해

⑧은 동작이 이미 끝난 완료상을 나타낸다.

## 15 시간 표현의 이해

'거기에는 눈이 웠겠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았-'과 함께 쓰여 과거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으며,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에서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인 '지금'과 함께 쓰여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⑨의 '막차를~다 갔다.'에서 '-았-'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으로 과거 시제가 아니다.
- ③ ⑩의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 문장이므로 '떠날'에 붙은 '-ㄹ'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 ④ ⑪의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에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인 '내년에'가 쓰인 것으로 볼 때 '진학한다고'에 쓰인 '-ㄴ-'은



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⑥의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에서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인 '오늘'과 함께 쓰인 형용사 '작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기본형을 그대로 써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6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분석

⑦은 시간 부사어 '내일'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이 쓰였으므로 미래 시제이다. ⑧은 시간 부사어 '오늘'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이 쓰였으므로 현재 시제이다. ⑨은 시간 부사어 '어제'와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였으므로 과거 시제이다.

## 17 선어말 어미 '-겠-'의 의미

- ⑤의 '-겠-'은 말하는 이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추측, ② 의지, ③ 가능성, ④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18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구분

⑦, ⑧, ⑨은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 19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구분

⑩은 사동 표현이고, 나머지는 피동 표현이다.

## 20 피동 접사와 사동 접사의 이해

⑪의 '안기다'는 '안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사이며, ⑫의 '안기다'는 '안김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피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⑦과 ⑪의 '풀리다'는 모두 '풀림을 당하다'라는 뜻의 피동사로 쓰였다.
- ② ⑦의 '업히다'는 '업힘을 당하다'라는 피동사로 쓰였고, ⑫은 '업게 하다'라는 사동사로 쓰였다.
- ③ ⑪의 '말리다'는 '마르게 하다'라는 뜻의 사동사로 쓰였고, ⑫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말리다'의 '-리-'는 사동 접사나 피동 접사가 아니다.
- ④ ⑦과 ⑪의 '녹이다'는 모두 '녹게 하다'라는 뜻의 사동사이다.

## 21 사동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이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주어가 오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주동문의 부사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주동사는 어간에 사동 접미사를 붙여 사동사로 만든다.

## 22 부정 표현의 특성 이해

ㄴ의 '해가 비치다'는 긴 부정문뿐만 아니라 '해가 안 비친다/해가 못 비치다'와 같이 짧은 부정문도 가능하다.

### 오답 풀이

- ① 주체인 '나'의 의지에 의해 수학 공부를 안 한 것은 '의지 부정'이고, 실력이 부족하여 수학 문제를 못 푼 것은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③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말다' 부정문만을 쓰는데, 이 경우 긴 부정문으로만 쓰인다.

- ④ 부사 '결코'는 '아니다', '없다', '못하다' 등의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인다. 따라서 뒤에 긍정 표현이 오는 경우에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⑤ 형용사인 '깨끗하다'에는 '못' 부정문은 쓸 수 없다.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안' 부정문을 써야 한다. 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에도 '못' 부정문을 쓸 수 있다. 이때는 긴 부정문의 형태로 쓰인다.

## 23 부정 표현의 의미 구분

⑦은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못' 부정문이고, ⑧은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한 '안' 부정문이다.

## 24 중의적 표현의 이해

- ⑨는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차'에는 '자동차'와 '마시는 차'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② '토끼가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와 거북이 모두 게으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 ③ '정원이 아름답다.'는 의미와 '정원의 꽃이 아름답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 ⑤ '민준이와 용수 두 사람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는 의미와 '민준이와 함께 용수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 25 부정 표현의 이해

- ⑩에는 '의지 부정'이 아니라 단순 사실의 부정이 나타난다.

## 26 중의성 해소 방법 이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는 현재 이미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지, 입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중의적 표현이 된다.

### 오답 풀이

-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모자가 예쁘다.'는 의미와 '장식물이 예쁘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장식물'이 예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점을 넣거나 '예쁜'이라는 말을 '장식물' 바로 앞에 넣는다.
- ②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에는 '손님들이 전부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손님들이 일부만 왔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말을 넣거나 보조사를 넣어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다.
-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문장에는 '형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동생을 좋아한다.'라는 의미와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말을 넣어서 중의성을 없앨 수 있다.
-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라는 문장에는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와 '내가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웃었는지에 따라서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말을 통해 중의성을 없앨 수 있다.

## IV

# 언어와 국어

개념01  
[언어]

## 언어의 본질

본문 157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1-1, 2 01 언어의 자의성 02 천-즈믄 03 (1) ○ (2) ○  
(3) ○ (4) × 04 Ⓛ 의사소통 Ⓜ 사회성  
01-3, 4 05 (1) ○ (2) ○ (3) ○ 06 Ⓜ 무한하게, 창조  
성 08 언어의 창조성

본문 158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⑤ 07 ①  
08 ② 09 ④

01 말의 형식과 내용 간의 관계는 우연적이어서 나라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름을 보여 준다.

02 언어의 자의성이라 언어의 뜻과 소리 사이의 관계가 우연적이라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역사성, ② 언어의 개념, ③, 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설명이다.

03 ‘우유’를 ‘토끼’라고 바꾸어 말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04 사회적으로 약속된 말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창조성, ④, ⑥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05 언어의 역사성이란 말이 변화하는 상황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소리의 변화와 뜻의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06 ‘어여쁘다’는 뜻이 변한 예이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아 말이 사라진 예에 해당한다.

07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현대 사회가 도래한 이후 새로

운 대상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 헷갈려요! 언어의 역사성과 창조성

새로운 단어의 생성과 관련한 언어의 본질에는 ‘역사성’과 ‘창조성’이 있다. 이 중 ‘역사성’은 새로운 문화나 대상이 생겨나면 새로운 언어가 생겨난다는 의미이고, ‘창조성’은 언어의 ‘역사성’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08 인간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를 조합해 새로운 말을 만들 어낼 수 있고, 이것은 언어의 특성 중 창조성에 해당한다.

09 학생 2도 ‘피아노’라는 단어를 활용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다.

#### 오답 풀이

- ① ‘피아노’라는 단어를 활용해 학생 1~30이 모두 다른 문장을 만들었다.  
② ‘피아노’라는 단어가 학생 10이 만든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학생 2가 만든 문장에서는 관형어로, 학생 30이 만든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였다.  
⑤ 학생 3은 ‘피아노’와 관련한 궁금증을 담은 내용으로 문장을 구성했다.

개념02  
[국어 규범]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본문 161쪽

### 1 단계 개념 다잡기

- 02-1 01 Ⓛ 표준어 Ⓜ 어법 02 포도, 지우개 03 (1) 남녀 (2) 낙원 (3) 양심 (4) 연세 (5) 이발 (6) 백분율 04 (1) 등굣길 (2) 양치물 (3) 햇수 05 (1) 할 수 있다. (2) 아는것이 (3) 백이십오억칠천삼백육십일만팔천오백이십일  
02-2 06 Ⓛ 교양 Ⓜ 현대 서울말 07 (1) 윗니 (2) 위쪽 (3) 위층 (4) 웃어른 (5) 개구쟁이 08 (1) × (2) ○ (3) × (4) ○ 09 숫양, 숫염소

본문 162쪽

### 2 단계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② 02 ① 03 ① 04 ②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④ 11 ③ 12 ①

**01**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았다. 두음 법칙에 따르면 ‘여자, 연세, 낙원, 양심’으로 각각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⑤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③ 하나의 단어로 띄어 쓰지 않아도 된다.
- ④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에 해당한다.

**02**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나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03**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 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을 따른다. 그러므로 ‘혁사’가 아니라 ‘역사’라고 써야 한다.

**04**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오답 풀이**

- 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맑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의미를 알기 어려워, 어법에 맞게 형태를 밝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③ ‘하늘’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05** ‘깻잎’은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①, ③~⑤ 외에도 ‘찻간, 뱃간’이 있다.

**06** 의존 명사는 띄어서 쓰므로 ‘올 수 있다.’로 써야 한다.

**07**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가 표준어이다. 그러므로 표준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⑤이다.

**오답 풀이**

- ① ‘수꿩’, ② ‘수소’, ③ ‘위쪽’, ④ ‘미장이’라고 써야 한다.

**08**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숫양, 수염소, 수쥐’의 경우에는 ‘숫-’으로 쓴다.

**09** ‘윗몸’은 표준어 규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 풀이**

- ① ‘웃돈’, ③ ‘위팔’, ④ ‘위증’, ⑤ ‘웃어른’으로 써야 한다.
- ②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강남콩’의 원래 표기는 ‘강남콩’이다.
- ③ 어원에 따르면 ‘강남콩’이라고 쓰는 것이 옳으나 ‘강남콩’이라는 표기로 더 널리 쓰였고, ‘강남콩’이 표준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⑥ <보기>에 따르면 어원과 관계없이 언어 대중들 사이에서 더 흔하게 쓰이는 말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더 널리 쓰이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2**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웃-’ 및 ‘윗-’은 원칙적으로 ‘윗-’으로 통일하여 쓴다. 그러므로 ‘윗입술’이 표준어에 해당한다.

**개념03**

[국어사]

**한글 창제**

본문 165쪽

**1 단계** | **개념 다잡기**

- |      |   |
|------|---|
| 03-1 | 01 (1) 실용 정신 (2) 자주 정신 (3) 애민 정신<br>02 (1) ○ (2) ○ (3) × 03 ⑦ 자음 ○ 11 ◎ 28        |
| 03-2 | 04 (1) ○ (2) ○ (3) ○ (4) × 05 ㄱ, ㄴ, ㅁ, ㅅ,<br>○ 06 (1) · (2) — (3)   07 ㅑ, ㅓ, ㅗ, ㅜ |

본문 166쪽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      |      |      |      |      |      |      |
|------|------|------|------|------|------|------|
| 01 ⑤ | 02 ① | 03 ② | 04 ① | 05 ② | 06 ③ | 07 ④ |
| 08 ② | 09 ⑤ | 10 ⑤ | 11 ② |      |      |      |

**01** 한글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02** ‘뼈’은 현재까지 남아 있다.

**03** 『훈민정음』 서문에 드러난 한글 창제 정신은 ‘자주, 애민, 실용 정신’으로 <보기>에서는 애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04**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오답 풀이**

- ②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③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④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⑤ ‘ㅊ’은 ‘ㅅ’에 획을 더해 만들어진 가획자이다.

**05**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자음 기본자이다.

**오답 풀이**

- ① ‘ㄷ’은 기본자인 ‘ㄴ’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 ③ ‘ㅂ’은 기본자인 ‘ㅁ’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 ④ ‘ㅈ’은 기본자인 ‘ㅅ’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 ⑤ ‘ㅋ’은 기본자인 ‘ㄱ’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06** ‘ㅍ, ㅎ’은 기본자인 ‘ㅁ, ㅇ’에 획을 더해 만들어진 가획자에 해당한다.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ㅁ’이다.

**07** ‘ㄹ’은 기본자인 ‘ㄷ’에 획을 더해 만들어졌으나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다른 가획자와 달라 ‘이체자’로 분류한다.

#### 오답 풀이

- ①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 ②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 ③ ‘ㅂ’은 기본자인 ‘ㅁ’에 획을 더해 만들어진 가획자이다.
- ④ ‘ㅁ’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헷갈려요!

#### 가획자와 이체자

이체자는 모양만으로 보면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보통의 가획자는 획을 더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데 이체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체자는 한글 청체 원리에서 말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08** 모음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그 외의 글자는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②이다.

**09**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 오답 풀이

- ①~④는 모음자의 제자 원리 중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10** ⑤은 상형의 원리로, ⑥은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11** ‘ㅑ’는 기본자가 합해 만들어진 ‘ㅏ’에 ‘ㆍ’를 합해 만들어진 합성자에 해당한다.

### 개념04 [담화]

#### 담화

본문 169쪽

### 1 단계 | 개념 다잡기

- 04-1** ① 화자 ② 청자 ③ 맥락 ④ 발화 ② (1) ○  
(2) ○ (3) × ③ ⑦ 창문 ⑧ 추워하는 ⑨ 손녀
- 04-2** ④ 상황 ⑤ 사회 · 문화적 ⑤ (1) 사회 (2) 사회 (3) 상황 (4) 상황 ⑥ 시간, 공간

본문 170쪽

### 2 단계 | 유형별 실력 쌓기

-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① 06 ⑤ 07 ②  
08 ③

**01** 할머니가 추워하는 상황으로 손녀에게 창문을 닫아달라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다. 손녀의 반응으로 보아 손녀는 할머니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2** 담화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의미한다.

**03** <보기>의 담화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상황으로, ‘공동체의 신념’은 사회 · 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04**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고려할 때 의사논 환자의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⑤은 사회 · 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는 요인이고, ⑥은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06** (나)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정진이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07** 우리나라 예로부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나’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언어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8** 아빠는 딸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개념01 [언어] ~ 04 [담화]

본문 172쪽

### 3 단계 | 실력 완성하기

**01** ① ② 1. 사회 구성원들이 컴퓨터의 ‘마우스’로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언어의 사회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문물이 생겨나서 인간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컴퓨터의 ‘마우스’는 쥐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 뜻이 더해진 것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③

**04** ① ⑤ ③ ⑥ ② ⑦ ③ ⑧ ④ ⑨ ① ⑩ ④  
**11** ⑤ ⑫ 말하는 이 또는 듣는 이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는 말하는 이의 발화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⑬ ② ⑭ ⑤ ⑮ ⑤

### 01 언어의 본질 이해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뜻과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그 결과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03** 언어의 본질 이해

선생님의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낙은 말의 운명이 아니라 언어의 사회성과 자의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띠어쓰기의 원리 이해

‘안개꽃 밖에’의 ‘밖에’는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써야 한다. 따라서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너만큼’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가 아니라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 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그러므로 ‘너만큼’으로 붙여서 써야 한다.
- ③ ‘천 원짜리’에서 ‘원’은 의존 명사이므로 ‘천’과 띠어서 쓰고, ‘-짜리’는 접미사이므로 의존 명사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므로 ‘천 원짜리’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어찌할 줄’에서 ‘줄’은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42항을 적용해 ‘어찌할 줄’이라고 띠어서 써야 한다.
- ⑤ ‘7 연구실’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3항에 따라 ‘7연구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05** 두음 법칙의 이해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가 아니다.

**06** 띠어쓰기의 원리 이해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띠어 쓴다. 그러므로 ‘스물일곱’으로 붙여 써야 한다.

**07** 사이시옷 규칙 이해

‘뒷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는 ⑦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빗물’은 ‘비(순우리말)+물(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의 ‘비’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므로 ⑦의 예로 적절하다.
- ② ‘아래집’은 ‘아래(순우리말)+집(순우리말)’으로 된 합성어로, 앞말의 ‘아래’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므로 ⑦의 예로 적절하다.
- ④ ‘뒷세’는 ‘터(순우리말)+勢(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의 ‘터’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므로 ⑦의 예로 적절하다.
- ⑤ ‘찻간’은 ‘車(한자어)+間(한자어)’으로 된 합성어로 ⑦의 예로 적절하다.

**헷갈려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단어는 6개이다.  
→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횟수

**08** 한글 맞춤법의 이해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므로, 제19항을 적용하여 ‘노피’를 ‘높이’로 정정해야 한다.

**09** 띠어쓰기의 원리 이해

제42항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띠어 써야 한다. ①의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띠어 쓰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 ② 제43항에 따라 ‘두시 삼십오분 오초’라고 써야 한다.
- ③ 제43항에 따라 ‘한 자루’라고 써야 한다.
- ④ 제45항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이라고 써야 한다.
- ⑤ 제45항에 따라 ‘청군 대 백군’으로 써야 한다.

**10** 한글의 창제 원리 이해

기본자를 제외한 한글 모음은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⑩의 설명은 한글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 관한 것이다.

**11** 담화의 맥락 이해

써니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진지한 얘기는 나누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편안을 주려는 의도로 “해 다 졌는데?”라고 말했음을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3** 담화의 맥락 이해

⑦은 영이와 영이의 강아지 별이를 가리키고, ⑧은 맥락상 민수, 영이, 별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⑧는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① ⑦은 민수와 영이를 가리키고, ⑧은 영이와 영이의 강아지 별이를 가리킨다.
- ③ ⑦은 민수의 강아지 봄이와 솜이를 가리키고, ⑧은 민수와 영이, 봄이를 가리킨다.
- ④ ⑦은 민수와 민수의 강아지 봄이와 솜이를 가리키고, ⑧은 영이와 민수, 별이를 가리킨다.
- ⑤ ⑦은 민수와 민수의 강아지 봄이와 솜이를 가리키고, ⑧은 민수와 영이, 봄이를 가리킨다.

**14** 담화의 맥락 이해

제시된 글에 따르면 ①는 지시 표현이 아니라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③ ⑦는 선희가 직접 ‘해수욕장’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⑧는 선희가 발화한 ‘해수욕장’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15** 담화의 상황 이해

⑧은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과 자신을 함께 낮추기 위한 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문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⑦은 부사어, ⑧은 주어에 해당한다.
- ② 담화의 맥락으로 보아 ⑦은 화자인 선배와 청자인 후배 1, 후배 2를 모두 포함한다.
- ③ ⑦은 맥락상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④ ⑧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주체로 ‘학교’와 ‘우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